“신문탈취 신세계 기소 검토”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8일 수요일 제3253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7일>

코스피 2040.29 (−13.64)

코스닥 729.64 (−22.37)

금리(국고채 3년) 1.83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33.30 (+7.30)

7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강남사옥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의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이냐, 주주가치냐?

이슈 분석

삼성합병 곤혹스런 국민연금… 보수언론 ‘쇼비니즘’ 논조 강화
합병 찬성논리 개발 쉽지않고, 엘리엇 ISD 제기할 가능성
“SK 합병건서 ‘주주이익 우선’ 입장 이미 표방한 셈” 분석도

국민연금은 삼성 손을 들어줄까? ISS(기관투자자서비스)를 비롯한 유수의 국제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반대표를 던질 것을 주문하면서 삼성은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심리적으로나마 기댈 곳은 ‘민족기업 삼성의 지배권 보호’를 부르짖는 몇몇 보수언론밖에 없어 보인다.

법원이 두 건의 가처분사건에서 삼성 편을 들어주었지만, 이마저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쇼비니즘’(국수주의)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국내법에는 합치할 지 모르지만 주주이익과 합병시 자산가치를 우선시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기 때문이다.

7일 현재까지도 삼성물산 주주가운데 확실한 삼성 편은 KCC를 합쳐도 20%가 채 안된다. 주총 참석비율을 70%로 가정해도 47% 이상의 우군을 확보해야 삼성은 합병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최소한 27% 이상의 표심을 더 얻어야 한다.

하지만 어디 하나 만만한 곳이 없다.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를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는 반 삼성 분위기가 짙다. 총 10.9%를 쥔 국내 일반 기관투자자도 ISS 등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무작정 찬성표를 던지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찬성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펀드 투자자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총 26.68%(엘리엇 제외)를 차지하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들도 역시 같은 이유에서 찬성표를 던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 남은 그나마의 희망은 국민연금(지분율 11.21%)이다. 보수언론들은 주총 일이 가까워 지면서 엘리엇을 투기자본으로 몰아세우며 “돈에 눈이 먼 벌처펀드로부터 ‘한국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기관인 국민연금으로서는 이런 ‘민족주의적’ 호소에 흔들릴 여지도 있다.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이번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의결권은 통상 기금운용본부 산하 투자위원회에서 입장을 정하지만, 중요한 사안은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넘긴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기금운영위원회 산하에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엘리엇은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으로 몰아갈 수 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진출한 국가의 법령이나 정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엘리엇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낸 것도 나중에 ISD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ISD 소송에 휘말려들면 국민연금이 부담할 비용도 가볍지 않다.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ISD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률자문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국내로펌 변호사에게는 시간당 44만원, 해외로펌 변호사에게는 시간당 608 달러(약 69만원)를 지불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SK- SK C&C 합병건에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합병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합병 비율, 자사주 소각 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SK 합병안에 찬성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주가치를 훼손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병안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삼성측에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한줄 News

▲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와 기업실적 우려 등이 겹치면서 증시가 출렁거린 가운데 특히 코스닥지수가 6일 2% 하락에 이어 7일에도 22.37포인트(2.97%) 떨어졌다.

▲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4월에 현저히 축소됐다.

▲ '한국의 에델바이스'라고 불리는 왜솜다리가 속리산 화양계곡 위쪽 해발 900m 이상의 고지대서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리스 사태를 논의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긴급 정상회의가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려 그리스 정부의 제안을 논의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국민임대 총 1만2000가구를 비롯해 모두 2만6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6조9천억원의 영업이익(잠정실적)을 올려 1분기(5조9800억원)보다 15.38% 증가했지만 2014년 2분기(7조1900억원)보다는 4.03%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당 복귀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아니라 경제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의 조기 당 복귀설을 부인했다.

▲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받는 운항관리자 8명의 임용을 보류한다고 7일 밝혔다.

▲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7일 강원 원주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고 국내외 각종 철광개발사업 관련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685명과 함께 홈플러스·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모두 2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9일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810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행복지수가 40.4점으로 2012년 하반기(40.4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무관한데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유학생 유치지원 및 기반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이 나오기 전날인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KY라인으로 불리던 비박근혜 투톱은 이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밀어내야하는 상황이 됐다. /연합뉴스

유승민의 '운명의 날'

새누리, 오늘 '사퇴권고 결의안' 위해 의원총회 열어

8일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 원내대표의 퇴진을 현실화하기 위해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8일 청와대와 친박근혜 의원들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유 원내대표가 계속해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당무를 수행하자 당 지도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해 내일 오전 9시에 의총을 소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표결로 가지 않도록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신임, 불신임 투표 행위로 가는 건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안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보다 어느 정도 다수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택된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대표가 발표한 결의안의 제목은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이다. 결의안 문구 작성은 김 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맡아 하기로 최고위에서 일임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장은 "유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무총리 인준 등 공을 많이 세웠다"며 "'유 원내대표 고생했다', '당을 위해 애썼다'는 등의 내용이 다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 의장은 사퇴 권고 결의안에도 '사퇴'라는 표현 대신 '정치적 결단'으로 에둘러 표현할 것을 최고위원들에게 제안했지만 다수의 최고위원은 애매함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사퇴권고'라는 명확한 표현이 들어갈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도 현재 결의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최고위 도중 회의장에서 먼저 나온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응했다"며 "의총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진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내일 의총에는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내일 의총에 참석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에 관해서는 "방식에 대해선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박 대통령,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금족령'

"개인적 행로 불가"… 유승민 사퇴 재압박 성격도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적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궁리에 여념이 없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향한 경고이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재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등 여당 현역의원 출신 장관들이 즐비하다. 이들이 내년 4월 13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른 시일내에 장관직을 물러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친박근혜 계파인 이들이 당의 비박근혜 지도부의 견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파 간 공천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를 노리고 최 부총리의 여의도 조기 복귀설이 나도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최 부총리의 복귀가 비박과 친박 간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로 상황이 일변할 전망이다.

국민의례하는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께서도 국민을 대신해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경제불황 극복을 외치는 마당에 경제부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상상할 수 없게 됐다.

/송병형기자 bhsong@

檢 "신세계 메트로신문 강탈 기소 검토 중"

메트로-신세계 양측 조사 마무리

검찰이 신세계 이마트측의 메트로신문 강탈 사건과 관련, 고소인인 메트로신문사와 참고인·증인, 신세계 측 피고소인들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일차 마무리 짓고 관련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 참고인 조사와 피고소인 신분조사를 마쳤고 고소인 측이 제출한 사건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했다"며 "기소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임길섭 검사에게 배정된 상태다.

검찰은 최근 신세계 측 관계자 소환에 앞서 지난 5~6월 고소인인 메트로신문사 측 참고인과 증인을 불러 조사했다. 박모 메트로신문 독자마케팅 부장은 지난 5월 15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박 부장은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증인들의 증언을 취합한 인물이다.

사건 당시 서울 회현역에서 신문을 탈취하는 신세계 이마트 홍보팀 직원 최모씨와 실강이를 벌인 본지 배포도우미 최모(73)씨는 증인 자격으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약 2시간동안 진행된 증인 조사에서 최씨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진술서에 적어 검찰에 제출했다. 최씨는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이자 신세계 이마트 직원한테 폭행을 당한 직접 피해자다.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증인인 폐지수집인 고모(75)씨와 주변 소규모 가판상인 정모씨 등 3명은 당시 상황에 대해 "신세계 직원 두 명이 모두 40여부의 신문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났다"는 일관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출근 길 홍보팀 직원 한 명이 10여부를 챙겼을 뿐"이라는 신세계 측의 해명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메트로신문측은 지난 5월 15일 이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과 당시 모습이 찍힌 서울메트로 회현역 내 CCTV 녹화물 등을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에게 증거물로 제출했다.

앞서 신세계 이마트 직원 2명은 지난 4월 8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근처에서 본지 배포도우미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메트로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지 40여부 등을 탈취해 도주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범죄가 일어났던 회현역 6, 7번 출입구 방향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확보한 영상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신세계 이마트 직원 한명이 배포도우미 최씨를 밀치거나 폭행하며 강제로 신문뭉치를 빼앗아 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메트로신문은 이들 증거와 증언을 근거로 신세계 이마트 직원 2명을 특수강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지난 4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4월8일 서울 남대문시장 근처 4호선 회현역 1번 카메라에 포착된 신세계 이마트 직원 최모씨가 메트로신문 배포 도우미 최모씨(74)를 폭행하고 배포하던 메트로신문을 빼앗아 가는 장면의 일부.

지난 3일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 모습. 금요일마다 증시가 폭락하면서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증시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진짜 위기는 그리스가 아니라 중국"

제2의 중국판 서브프라임 경고 속출

"그리스의 위기는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의 CNN머니는 6일(현지시간)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리스가 아닌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글로벌 투자자에게 경고했다.

그리스의 인구(약1100만명)는 미국 오하이오주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은 카자흐스탄·알제리·카타르 수준인 반면 중국은 14억 인구에 세계2위의 GDP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CNN머니에 따르면 중국은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의 동반 급락으로 현재 증시 버블 붕괴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다. 중국 정부의 과감한 증시 부양책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막대한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실제 중국은 지난 3주 동안 금요일마다 주가가 폭락해 '검은 금요일'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한 중국판 서브프라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CNN머니 역시 "증시 버블 붕괴는 흔히 경제적 혼란의 신호가 됐다"며 "2008년(서브프라임 모기지)과 2000년(닷컴 버블 붕괴)의 일을 기억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미국 은행들의 위험노출도 차트에 주목했다. RBS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중국에 대한 위험노출도는 현재 1000억 달러(약113조원)로 그리스에 대한 위험노출도(120억 달러)의 10배에 달한다. 중국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게도 제2의 교역파트너다.

아시아도 중국발 위기에서 무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캐슬린 브룩스 포렉스닷컴 리서치 이사는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이 증시 출혈을 막지 못한다면 그 충격이 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는 CNN머니에 그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 역시 "그리스와 푸에르토리코의 부채 위기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미국의 거물급 투자자들은 경계 대상 최상위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속내 노골적으로 드러낸 日

한국 뒤통수 쳐놓고 "마무리가 허술" 비판
강제징용 사실 게시물 설치 가능할지 의문

일본 집권세력이 일제 강제징용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 어떤 본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이 문제의 세계문화유산에 한국인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을 제대로 세울지 우려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한일 협상 끝에 '한국인이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외무성에 대해 "마무리가 허술하다. 직업 외교관으로서 실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일이지만 강제노동을 인정했다고 내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총리 관저 소식통은 "한국에 당했다는 말이다"라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협력 자세로 전환한 한국이 막판에 경직된 태도를 보여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 관저의 불만에 대해 "한국의 협력을 약속 받은 6월의 일한 외교장관 회담 단계에서 진술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측에 파고들 여지를 남겼다는 생각이 일련의 비판의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현재 일본 측 협상대표가 말한 강제노동 관련 발언을 두고 '강제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대외 설명을 본격화 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전날 보도를 통해 "위법성을 가진 강제노동을 일본이 인정했다는 인상이 확대되면 한국에서 강제징용 근로자의 청구권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일본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징용 근로자의 청구권 문제는) 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일 양국간 협의는 물론이고 국제회의 자리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조약에서 금지된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강제징용 근로자의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관계부처 간의 의견 조정에도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번 협상 결과에 환영을 나타내면서 향후 한국에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병형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 심판대 오른다

내일 공개변론… "병역면제 아니라 대체복무 원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9일 이 문제와 관련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자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도 관련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며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0년 11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듬해 8월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2013년 6월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6000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93.5%가 실형이 확정됐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7대, 18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돼있는 상황이다.

최근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쪽에서는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종교관, 가치관에 따라 전쟁과 인간 살상에 대해 반대하게 됐고 이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 쪽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방부 쪽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유명 사립대교수, 장학금 착복·성희롱 의혹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가 제자의 장학금을 착복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7일 K대 대학원 총학생회와 학교 당국에 따르면 이 학교 A교수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연구조교의 장학금 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는 등 제자들의 돈 620만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교수는 이 돈을 책을 펴내는 데 필요한 출판 비용으로 쓴 것으로 학생들은 파악하고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또 A교수가 여성 제자에게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다니는 것 아니냐", "너는 색기가 있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졸업 등이 걸려 있어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으며, 일부는 지도교수 변경을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최근 이 교수를 교무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학교 측은 "현재 진상파악을 시작했다"며 "내용에 따라 (사실로 확인되면)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스스로 관 꺼내 사망한 환자… 간호사 '벌금형'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가 스스로 기도에서 관을 꺼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간호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28·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 중 의식이 회복될 경우 목에 불편함을 느껴 스스로 삽입된 관을 꺼내는 사례가 있다"며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A씨에게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가 기도 내에 삽입된 관을 스스로 꺼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좌측 폐가 폐쇄돼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 B씨를 간호했다.

A씨는 삽관술이 이뤄진 당일 진정제를 투여한 B씨에게서 채혈을 하기 위해 묶여 있던 오른팔을 풀었다가 다시 묶지 않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는 기도 내에 삽입된 관을 손을 움직여 스스로 꺼냈고, 결국 22분가량 지나 심장 이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 손을 다시 묶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홍원기자

조희대 대법관 '땅콩리턴' 상고심 주심 맡는다

원칙론자·엄정진행 정평

'땅콩리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주심을 조희대(57·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관이 맡는다.

7일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 사건의 주심을 조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접수돼 조 대법관과 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경상북도 경주 출신 조 대법관은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으며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조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수원역 노숙소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 노숙소녀 폭행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이후 먼저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2명까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3년 그간 명의신탁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땅콩(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자 상고했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라며 상고를 포기했다. /이홍원기자 hong@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상무, 혐의 인정

"2억원, 영업활동비로 사용"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박 상무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 1차 공판에서 박 상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박 상무가 받은) 2억원은 회사 영업활동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상무는 받은 돈 2억원 중 1억2500만원만 사용했다"며 "나머지 7500만원은 개인 금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박 상무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현장관리비 등 영업활동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김모 포스코건설 현장 소장과 장모 영업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수렴한 뒤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박 상무는 2012년 9~10월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W사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상무는 김 소장에게 W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모 W사 전무에게 돈을 받아 박 상무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홍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홈플러스·신한생명 상대 손배소 '본격화'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2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일 오전 9시부터 50분간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소비자단체協 "개인정보 불법 매매… 불법성 크다"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들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에 대한 대규모 집단소송 제기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0여곳의 단체들은 소비자 685명과 함께 홈플러스와 신한생명,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7일 오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다"며 "(이런 행위가)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소송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배상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홈플러스 등의 불법행위 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금액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소비협 등 10개 단체는 소송에 앞서 지난 3월 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521명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조정절차에 불응하면서 지난 5월 6일 위원회로부터 조정불성립 결정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다.

분쟁조정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전 원고와 피고 간의 조정을 도출해 내는 제도다.

대규모 집단소송은 지난주부터 본격화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30일 회원 1074명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곳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 참여인원은 2000여명으로 늘었다.

현재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일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지배관리권이 넘어가 개인정보 주체가 바뀌어야 판매라고 한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지 제공은 아니다"라고 유상판매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홈플러스 측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 진술과 수사 보고서 등의 자료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며 대치하기도 했다.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수사 보고서에 검찰의 추측성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에 이를 다시 번복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3차 준비기일은 홈플러스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檢 '메르스 사태' 로 수사절차 문제 검토

검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7일 대검찰청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사 절차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제 메르스 확진 환자 A씨는 지난 5월 말 부터 6월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시 A씨를 조사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이 자가격리 조치되면서 감염병에 대비한 수사 지침이나 관련 규정 미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형사부(부장검사 안상돈)를 중심으로 감염병과 관련된 기존 법규나 수사 지침 등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입법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감염병의 확산이 검찰 업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감염병 환자나 격리대상자로 지정돼 장기간 격리될 경우 구속기간 등 수사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또 "환자의 격리 거부나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허위사실 유포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감염병과 관련된 기존 법규나 대응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미란기자

'파혼男 협박' 30대 여성 CEO, 집유 확정

파혼한 뒤에도 미리 찍어둔 웨딩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결혼한 것처럼 행세하고 상대방 남성을 찾아가 협박성 문구를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기업인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며, 재물손괴와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연미란기자

法 "주한미군 운전 과실로 국민 다치면 정부가 배상"

주한미군 군용차를 운전하는 병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국민이 다쳤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여러 협정·조약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주한미군 교통사고 피해자 A씨와 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한미군 R상병은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에서 미군 군용 5t트럭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쳤다. A씨는 트럭과 부딪치며 트럭의 앞바퀴 부분에 몸이 끼었다.

하지만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미군 병사가 차에서 내려 후진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R 상병은 이를 보고 차량을 후진했다. 다른 병사가 바퀴에 끼어 있던 A씨를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차가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A씨에게 충격을 줬다.

A씨는 이 두 차례의 충격으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A씨의 아버지가 들어 놓은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했다.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법원은 R상병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 이 사고 직후 A씨를 구호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 과실 등으로 2차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인 A씨도 1차 사고가 일어날 때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의할 의무를 위반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이홍원기자 hong@

신·윤·권, 표정 엇갈린 삼성의 '삼두마차'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신종균 사장 갤럭시S6 효과 미풍 '침울'
윤부근 사장 CE부문 흑자전환에 '안도'
권오현 부회장 DS부문 상승세 유지 '웃음'

신종균 사장 윤부근 사장 권오현 부회장

삼성전자의 사업을 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삼두마차' 신종균 사장과 윤부근 사장, 권오현 부회장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2분기 삼성전자 잠정실적이 나온 가운데 각 사업부별 성적이 드러나면서다.

삼성전자는 7일 매출액 48조원과 영업이익 6조9000억원의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5조9800억원) 대비 15.38%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7조1900억원)보다는 4.03% 감소했다. 매출액은 전분기(47조1200억원)보다 1.87% 증가했으나 지난해 동기(52조3500억원)와 비교하면 8.31% 줄었다.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갤럭시 S6 효과'였다. 지난 4월 시장에 출시된 갤럭시 S6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영업이익이 8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까지 나왔다. 출시 초기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미스터 갤럭시' 신 사장도 판매 목표 '7000만대'를 언급하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뚜껑이 열리자 갤럭시 S6가 삼성전자 실적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분기 신 사장이 이끄는 IM(IT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분기(2조7400억원)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갤럭시 S6 효과'가 미미했다는 의미다.

업계는 갤럭시 S6의 판매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출시 후 갤럭시 S6엣지의 수요가 강했으나 곡면 디스플레이 수율문제가 불거졌고, 수요예측 실패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갤럭시 S6와 S6엣지의 시너지도 효과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가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IM 부문은 갤럭시 S6 출하량이 예상치를 밑돌아 매출액과 수익성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다음 분기 실적 전망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갤럭시A·갤럭시J·갤럭시E 등 중저가 스마트폰 역시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샤오미 등 경쟁업체에 밀리는 등 IM부문의 제품 경쟁력과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 사장이 수장으로 있는 CE(소비자가전) 부문은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다. 1분기 1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흑자전환(약 2500억원)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분기 전망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유럽과 신흥시장의 침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권 부회장이 지휘하는 DS(부품) 부문은 이번에도 든든한 허리역할을 하며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끌었다.

반도체 부문은 지난해 4분기(2조7000억원), 올해 1분기(2조9300억원)에 이어 2분기에 3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며 안정이익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PC D램 가격 하락에도 전체 메모리 반도체가 호조세를 이어간 데다 V낸드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인삼, 식품 인정… 수출길 '활짝'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규격 채택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으로 꼽히는 인삼의 수출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고 7일 밝혔다.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이다. CODEX 규격은 186개 전체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이며 국제교역을 할 때 공인기준으로 적용된다.

종전에는 인삼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간주돼 수출할 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거쳤고 관세혜택도 덜 받았다.

농림부 측은 "식품교역 시장에서 식품과 약품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약품의 경우 수입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각종 비관세 장벽이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반면 식품은 약품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공급이 가능하고 통관이나 관세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입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CODEX 세계규격 채택을 계기로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으로 인삼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은 약품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

최근 수년간 인삼제품이 수출된 나라는 70개국 내외로 해외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다. 특히 홍콩·중국·일본·대만·미국 등 상위 5개국의 비중이 86%로 편중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삼제품 세계규격 채택은 식품으로서 세부기준을 규정한 세계 유일의 국제공인문서이며 일부 국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수출국을 다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개척,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인삼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삼제품이 세계규격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김치를 포함해 두 개의 국제식품위원회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됐다. 고추장·된장은 이미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2009년에 등재된 바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5월 가계대출 768조2000억 '사상 최대'

전월比 8조5000억 증가

저금리 등의 여파로 지난 5월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5000억원 증가했고 기타 대출이 2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이는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채권을 제외한 것으로 5월 중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월 가계대출은 8조5000억원에 달한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4월(10조1000억원)에 비해 축소됐지만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5월 중으로는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융권별로는 예금은행 대출이 1조6000억원, 상호 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가계대출과 비수도권이 각각 전달의 6조원, 4조2000억원에서 5000억원, 2조4000억원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461조원, 비수도권은 307조2000억원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금융기관별 가계대출[1)]

(증감액, 조원)

	2014				2015			
	연중	1~5월중	4월중	5월중	1~5월중	4월중	5월중	잔 액(5월말)
예금취급기관 (A+B)	58.6	12.1	5.0 (5.9)	3.8 (6.0)	22.3	10.1 (10.0)	2.9 (9.8)	768.2
┌주택담보대출	42.5	10.0	3.4	2.6	17.7	8.0	0.5	478.3
└기타대출	16.2	2.1	1.5	1.2	4.6	2.1	2.5	289.8
예금은행 (A)	38.5	4.9	2.8 (4.5)	2.0 (4.3)	18.2	8.7 (10.8)	1.6 (10.6)	537.8
┌주택담보대출	36.7	6.3	2.5	1.8	18.5	8.2	0.6	384.1
└기타대출	1.8	-1.4	0.3	0.1	-0.3	0.5	1.0	153.7
비은행예금취급기관 (B)	20.1	7.2	2.2 (9.5)	1.8 (10.0)	4.2	1.4 (8.3)	1.3 (8.0)	230.4
┌주택담보대출	5.8	3.7	0.9	0.7	-0.8	-0.2	-0.1	94.2
└기타대출	14.3	3.5	1.3	1.1	4.9	1.6	1.4	136.1
┌상호저축은행	1.1	-0.2	0.0	0.0	1.7	0.4	0.3	12.0
│신용협동조합	3.0	1.2	0.3	0.2	1.0	0.2	0.3	26.5
│상호금융	10.6	3.7	1.2	1.0	1.1	0.5	0.6	142.8
│새마을금고	5.6	2.7	0.7	0.6	0.5	0.2	0.2	47.9
└신탁 우체국예금	-0.1	-0.2	0.0	0.0	-0.1	0.0	0.0	1.1
〈참고〉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2)]	1.8	1.0	-0.1	-0.2	7.2	-0.2	5.6	84.3

주 : 1) ( )내는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주택금융공사 앞 양도분(유동화분 포함) 및 국민주택기금 취급분

'금녀의 벽' 허문 금호家

박주형 상무, 임원 선임

금호석유화학은 임원인사를 통해 박주형(사진) 상무를 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1남 1녀 중 둘째이다. 금호그룹의 경영에 여성이 참여한 것은 박 상무가 최초다.

박 상무는 2012년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취득해 여성 최초로 대주주에 올랐으며 현재 총 0.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영참여를 금기시해왔고 형제공동경영합의서에도 이를 적시하고 있었다.

박 상무는 구매와 자금 부문을 담당한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구매,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상무는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연수·인턴 생활을 했으며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에 입사해 올해 6월까지 근무했다.

박 회장의 장남 박준경 상무는 2007년 금호타이어를, 고 박정구 회장의 장남 박철완 상무는 2006년 아시아나항공을 거쳐 현재 금호석유화학 해외영업담당 상무로 각각 재직 중이다.

/정용기기자 yonggi@

100세 시대 블루오션 '은퇴시장' 잡아라

금융권, 특화 브랜드 육성·부서 신설 등 각축전
카드·보험연계 노후 설계 세미나·귀농 서비스도

금융권이 은퇴시장을 잡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한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농협금융그룹 등은 그룹 차원에서 특화브랜드를 만들고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은행, 카드, 보험과 연계한 노후 설계 세미나와 귀농 체험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은퇴설계시스템 구축·전문인력 양성**

NH농협금융지주는 100세 시대를 맞아 시니어 대표브랜드 'NH ALL100플랜'을 내놨다.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은 "농협금융이 'NH ALL100플랜' 브랜드를 통해 시니어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은퇴설계 1등 금융그룹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계열사간 제휴와 특화 상품을 통해 시너지도 강화한다.

우선 농협은행은 시니어 마케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자산관리 전문인력인 'ALL100플래너' 135명과 거점점포 100개소를 선정했다.

아울러 시니어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제공을 위해 연금예금과 연금대출, 시니어 전용 신용카드 등 'ALL100플랜 전용패키지'를 출시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100세 시대 연구소'를 중심으로 은퇴설계매거진 'THE 100'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은퇴자산관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시니어 고객에 특화된 방카슈랑스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은퇴비즈니스 차별적 역량강화'를 6대 중점추진 사항의 하나로 선정하고 그룹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종합적이고 최적화된 은퇴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지난 5월 전국 781개 미래설계센터도 확대했다. 이곳에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은퇴상담 전문과정을 수료한 '미래설계컨설턴트'가 배치됐다.

자회사인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역시 은퇴 맞춤형 상품을 내놨다.

신한카드는 '미래설계카드'를 통해 은퇴 생활비를 관리하며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자산관리 서비스 '신한Neo50플랜'을 제공한다.

이밖에 신한생명은 '신한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과 은퇴 상황별 맞춤형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신한 미래설계 연금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 **특화카드·패키지 상품 출시… "종합적 은퇴 서비스 지원"**

연금수급자를 위한 패키지상품도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우리행복가득 연금패키지' 상품을 선보였다.

'우리행복가득 연금통장'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우리은행의 연금 가입자 전용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에게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를 월 최대 15회까지 면제해준다.

'우리행복가득 카드'는 노후에 자주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 마트, 대중교통 등 생활밀착업종에서 사용 시 5~10%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다.

아울러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 600개의 문화·레저시설 무료이용권과 최대 50% 할인권 제공, 전국 영화관 3000원 할인, 항공권과 KTX 승차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IBK기업은행은 지난 5월 개인별 맞춤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IBK평생설계시스템'을 오픈하고 전 영업점에 은퇴상담 전문인력인 'IBK평생설계플래너'를 배치했다.

'IBK평생설계시스템'는 고객의 재무상황과 은퇴준비 현황 등을 토대로 '평생설계지수'를 산출해 은퇴 준비도를 진단한다.

기업은행은 또 이용금액의 일부분을 노후 준비통장으로 되돌려주는 '스몰 빅(Small Big) 카드'도 출시했다. '스몰 빅 카드'는 카드 이용대금의 1.3% 금액을 적립식 금융상품에 입금해 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띵똥' 할인쿠폰이 도착했어요"

우리카드, 위치활용 '비콘' 서비스 실시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를 앞둔 이모(29)씨는 데이트 전 휴대폰을 먼저 체크한다.

카드사가 데이트 장소 주변에 있는 커피숍 정보와 음식점 할인혜택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 씨는 카드사에서 안내하는 맛집과 다양한 혜택 등을 통해 성공적인 데이트를 준비할 수 있었다.

7일 우리카드는 신촌, 강남 일대에서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활용한 비콘(Beacon)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핵심 기술인 비콘(Beacon)은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반경 50~70m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신호를 주고받아 위치 정보를 파악한다.

이후 사용자의 소비성향과 패턴 등 조건에 따라 맞춤 정보를 알려주고, 모바일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서비스는 신촌역과 강남대로 일대, 일산 원마운트 등 시범지역 내 총 29개 가맹점에서 KT가 구축한 기가비콘 플랫폼을 활용해 시현된다.

고객은 스마트폰에 '우리카드 스마트앱'을 설치한 후, 비콘 알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비콘이 설치된 가맹점 인근에 형성된 '비콘존(Beacon Zone)'에 진입하면 비콘과 스마트앱이 통신해 고객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주변지역 제휴 가맹점의 혜택 정보를 휴대폰으로 띄워준다.

한편 우리카드는 비콘존의 가맹점들과 손잡고 혜택도 제공한다.

우선 일산의 도심형 테마파크인 '원마운트'에서는 워터파크·스노우파크 입장료 30% 현장할인, 강남역의 와인펍인 '와인코르크'에서는 우리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 혜택을 준다.

신촌의 인도음식점 '이지인디아'에서는 그린샐러드 무료제공 등 29개 가맹점과 제휴해 다양한 할인과 사이드메뉴 무료제공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밖에 우리카드 비콘알림을 받은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비콘 인프라 시범사업 서비스는 실시간·위치·소비자행동을 반영한 미래형 마케팅의 테스트베드"라며 "앞으로 KT가 기가비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실시 지역을 확대한 정식 서비스가 출범하면 첨단 IoT 마케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펀드관리도 모바일로 OK" 신한은행은 모바일 펀드관리기능을 강화한 '스마트펀드센터'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한은행 제공

7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

채권 전문가 98.2% 대답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대다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채권 보유와 운용관련 124개 기관에 종사하는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4개 기관의 응답자 114명 가운데 98.2%는 금통위가 이달에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메르스 여파에 따른 내수 침체와 수출부진 장기화 등 금리 인하 유인과 가계부채 증가·자본유출 위험 등 인상 유인이 상존한 가운데 금통위가 2개월째 기준금리 변동 결정을 할 만한 큰 유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채권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본 응답자 비율은 전달 16.3%에서 이달 14.9%로 낮아졌으며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6.2%로 전달의 29.9%보다 23.7% 포인트나 떨어졌다.

물가에 대해선 응답자의 75.4%가 보합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의 비율은 16.7%로 전달보다 5.6%포인트 높아졌다.

/김민지기자 minji@

분양시장 수요자 세대교체 '3040' 주도

실수요자는 30대, 투자자는 40대 위주

분양시장의 주 수요층이 '5060 베이비붐 세대'에서 '3040 에코세대'로 교체되고 있다. 전세난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은 30대, 유망 신도시나 산업단지 인근은 40대 계약자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힌 위례신도시의 '위례 우남 푸르지오'는 계약자 중 3040세대의 비율이 62.7%에 달했다. 40대가 38.2%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4.5%를 차지했다. 이어 50대 22.6%, 60대 이상 7.9%, 20대 6.8% 순이다.

'위례 우남 푸르지오'는 계약금이 20%에 달해 5~10%인 다른 단지에 비해 초기 부담이 컸다.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강남권 신도시라는 높은 미래가치에 힘입어 에코세대가 대거 몰렸다.

최근 부산에서 청약 돌풍을 일으킨 '해운대 자이2차'의 당첨자 역시 40대가 38.4%에 달했다. 다음으로 30대 28%, 50대 26.9%, 20대 6.5%다.

최근 2년간 인근 '해운대 자이1차'의 가격이 1억원가량 오른 사실이 알려지며, '해운대 자이2차'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해운대구 우동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첨만 되면 웃돈이 4000만원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며 "이전 같으면 자금력이 약한 3040세대는 관심만 가질 뿐 실제 청약에 나서지는 못했겠지만 지금은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지방 산업단지 역시 40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충북 충주의 첨단 산업단지에서 분양 중인 '충주 코아루 퍼스트'는 40대의 계약 비율이 39%로 가장 높다. 30대가 25%, 50대가 22%로 뒤를 잇고 있다.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태 충주 코아루 퍼스트 분양본부장은 "저금리 여파로 저축으로는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지면서 젊은층들도 월세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라며 "산업단지 소형아파트다 보니 월세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3040세대가 투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외곽에서는 전세난에 지친 30대의 계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초기 대규모 미분양에도 불구하고 올 초 완판된 경기도 김포시의 '한강센트럴자이1차' 계약자는 30대가 40%에 이른다. 이어 40대 29%, 50대 19% 순이다.

경기도 화성 봉담읍에서 분양 중인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는 인근의 대학가 수요와 널리 분포된 산업단지 등으로 직주근접 수요층이 두껍다 보니 30대의 '새 아파트 갈아타기' 열기가 뜨겁다. 6월 말까지 80%가 계약된 가운데 30대의 비율이 43%로 가장 높다. 이어 40대 30%, 50대 17% 순이다.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 분양한 '자연&롯데캐슬'과 '자연&e편한세상'의 계약자 연령대별 분포 또한 30대가 47.82%로 가장 높다. 또 40대는 29.88%, 50대 이상은 20.91%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는 쉬워진 반면 돈을 모으기는 어려워지면서 3040세대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라며 "이에 3040세대가 전통적인 부동산 수요층 5060세대를 밀어내고 주류로 우뚝 서게 됐다"고 분석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GS건설, 20년 간 입주민용 무료 셔틀버스 운영

평택 '자이 더 익스프레스'

GS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동삭2지구에 공급하는 '자이 더 익스프레스'에 20년간 운영하는 '자이 203 익스프레스'(사진) 셔틀버스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자이 203 익스프레스'는 20년간 출·퇴근 시간에 3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는 의미의 '203'과 셔틀버스 이용으로 단지에서 KTX 평택지제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의 '익스프레스(Express)'를 합쳐 만들었다.

1~5블록 자이 더 익스프레스 입주민들은 1차분이 입주하는 2017년 말부터 20년간 아파트 단지에서 KTX 평택지제역과 이마트를 왕복하는 4대의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장 10년인 아파트 하자보수기간보다 2배나 긴 혜택이다.

GS건설은 최장기 셔틀버스 운행 기록을 세우게 될 '자이 203 익스프레스'를 통해 출·퇴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 외에도 단지 앞으로 KTX평택지제역과 안성IC를 잇는 BRT(간선급행버스) 노선까지 신설될 예정이라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정광록 자이 더 익스프레스 분양소장은 "KTX 평택지제역이 완공되면 수서역까지 20분대면 도착 가능해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따라 입주민의 더욱 빠르고 편리한 KTX 이용을 위해 장기적인 셔틀버스 도입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이 더 익스프레스'는 평택 동삭2지구 총 5개 블록에서 5705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11㎡, 1849가구로 이뤄진 1차분이 오는 10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비전동 1102-2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7년 12월 예정. /박선옥기자

광명 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102.2%… 상반기 1위

상위 10위, 경기도 싹쓸이

수도권 아파트의 시·군·구별 낙찰가율 상위 1~10위를 경기도가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 지역은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았다.

7일 부동산경매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경매로 낙찰된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2.2%를 기록한 광명시로 조사됐다.

경쟁도 치열했다. 광명 경매 아파트의 입찰자수는 평균 14.2명으로 수도권 시·군·구 중 가장 많았다.

광명시는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가 이어진데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주택 수요 증가와 전셋값 강세 등으로 경매 아파트도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안산시 단원구의 낙찰가율이 101.7%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의왕시와 이천시도 100.2%, 100.1%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4곳의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낙찰자의 다수가 감정가 보다 비싼 값에 고가 낙찰한 것이다.

이밖에 평택시(98.0%), 수원시 팔달구(97.9%), 수원시 장안구(97.1%), 용인시 수지구(96.9%), 수원시 영통구(96.8%)이 6~10위에 올랐다.

서울에서는 강북구가 95.1%로 평균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강동구(95.0%), 강남구(94.8%), 노원구(93.4%), 성동구(93.4%)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와 강동구는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와 전세난이 영향을 미쳤다.

연립·다세대 역시 경기도의 낙찰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원시 영통구가 10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선옥기자

<월별 수주실적 및 증감율 추이>

5월 국내 건설 수주액 전년比 2배↑

민간-공공부문 양극화 심화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5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 동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민간부분과는 달리, 공공부문은 주춤한 증가세를 보이며 양극화 현상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5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15조49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 7조9354억원과 비교해 95.3% 증가한 수준이다. 전달(10조8505억원)에 견줘서도 42.8% 늘었다.

수주액 증가는 민간부문이 이끌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전년 동월(4조7997억원)보다 133.9% 늘어난 11조2241억원을 기록했다.

주택시장 호황으로 건축공종이 4조542억원에서 10조8115억원으로 166.8% 증가한 게 컸다. 토목공종은 7455억원에서 4086억원으로 45.2% 감소했지만 전체 민간부문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적어 영향이 없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4조2715억원으로 전년 동월(3조1357억원) 대비 36.2%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수주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수주액을 살펴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1조4211억원에서 2조8379억원으로 99.7% 증가했고, 건축이 1조7147억원에서 1조4336억원으로 16.4% 감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호황으로 민간부문 수주는 당분간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메르스·가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그리스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성장률 저하 전망 등의 악재로 정부의 추경안 집행이 지연될 경우 공공건설 수주 회복은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잘나가던 증권株, 그리스·중국 악재에 '휘청'

| 마켓인사이트 |

글로벌 불확실성에 롤러코스터 등락 거듭

국내 증권사 호실적 전망 전문가 "저가 매수 기회"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3.64포인트(0.66%) 내린 2040.29에 장을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피곤한 듯 눈을 비비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대비 22.37포인트(2.97%) 내린 729.64로 마감했다. /뉴시스

잘나가던 '증권주'가 그리스·중국발 악재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최근 증권주들은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상황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가 국제금융시장이 기대하던 바와 달리 결정되면서 증권업종은 약 5% 하락해 코스피 하락률(2.4%)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와 중국 증시 폭락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증권주의 변동성도 더욱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권업종이 조정 단계에 있다"면서 '중립' 의견을 유지했다.

이 연구원은 "그리스 사태가 예상과는 다른 진전 추이를 밟는 데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모든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첫 번째 해인 데다 민간 투자자의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도)는 1차 위기 이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스 국민 투표 결과도 '긴축에는 반대하지만 유로존에는 남고 싶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달 중순부터 발표될 증권사의 2분기 순이익은 컨센서스(추정치)에 맞는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큰 폭의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던 입장에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국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나 주주 가치 배려 가능성이 큰 증권사를 선별하는 게 더 낫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내 증권사들의 호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최근 조정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들의 펀더멘털(기초여건)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올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점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저히 낮아진 금리는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며 "증권사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도 증권주에 대한 투자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 순이익의 경우 1년전에 비해 221% 증가할 것"이라며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 1분기 대비 38%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

거래소, 증시 급락에 올 첫 비상회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 판단 '비상 대책반' 가동 대기

한국거래소는 7일 최근 증시가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크게 출렁임에 따라 '비상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거래소가 시장점검 회의를 연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이 패닉 징후를 보이거나 더욱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열고 있다"며 "이번 그리스 사태가 어디로 흐를지 워낙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필요시 '시장운영 비상 대책반'을 즉시 가동해 시장 안정화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책반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대내외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꾸려진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비상 대책반까지 꾸려질 경우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격제한폭의 일시적 축소, 공매도 제한 등 다양한 안정화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66% 떨어진 2040.29, 코스닥은 2.97% 급락한 729.64로 마감했다. /김민지기자

한투證, 트루 ELS 6110회 모집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9일까지 S&P500지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UE ELS 6110회 스텝다운형'을 10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인터넷전문銀 수혜주 투자는 "길~게 보자"

가맹점 기반·메신저 채절효과 KG이니시스·다음카카오 주목

개인정보보호 등 과제 남아 전문가 "장기적 시각 접근"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시화되면서 ICT기업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속도를 내면서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수혜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고객 편의성, 혁신 등을 이유로 ICT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사업 진출 의지가 강한 다음카카오와 KG이니시스가 주목받고 있다.

7일 코스닥 시장에서 다음카카오는 전날 대비 0.29% 오른 13만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KG이니시스는 전일보다 1.81% 내린 2만1650원을 기록했다. KG이니시스는 지난 2월초 장중 한때 2만9300원까지 치솟으며 신고점을 찍은 이후 주춤세지만 2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와 KG이니시스는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입금과 계좌이체 등 기본적인 인터넷뱅킹 업무는 물론 외환, 신용카드, 보험대리업무 등 기존 은행의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 특히 무점포로 운영되다 보니 예대마진과 수수료 등을 최소화해 고객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증권·보험·ICT 기업이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1~2개 시범사업자를 선정,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채널을 통하기 때문에 고정비 절감 효과가 크다"며 "ICT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유리한 비용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 연구원은 이어 "미국 인터넷 은행의 주요 비용을 보면 마케팅 비용이 40%를 차지한다"며 "다음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접점이 확보돼 있어 출시 초반 이후 경쟁사 대비 마케팅 비용 절감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KG이니시스는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대행 사업이 본업이고 가맹점은 10만개, 거래액은 10조원을 넘는다"며 "은행업에서는 대손비용이 매출액 대비 약 30~60%를 차지하는데 KG이니시스는 결제금액을 담보로 가맹점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어 대손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은산분리 완화, 개인정보보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지난 3일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경실련)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총자산 5조원 이상인 중견그룹(산업자본)에 지분소유가 50%까지 허용되면 인터넷은행이 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며 "산업자본의 지분을 25% 이하로 규제하는 등 대주주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비대면 거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며 "금융거래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의 완전한 책임이 정착돼야 금융보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더라도 단기적인 성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확대는 시범 법인이 운영되고 은산 분리법 완화가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17년으로 예상된다"며 "ICT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할 경우 본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규제 완화와 사업 추진에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배기자 bobae@

“안심하고 오세요” 메르스 치유나선 항공업계

대한항공·아시아나, 여행사·기자단 초청
팸투어·걷기행사 등 국내여행 안전 강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요우커 되찾기에 돌입했다.

이들 항공사는 중국 여행사 대표와 기자단을 우리나라로 불러 안전한 여행지라는 인식을 심고 전파할 계획이다.

7일 각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항공의 항공권 취소는 국내 2만5000여명, 국제 10만6000여명 등 13만명을 넘어섰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5월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항공권 취소가 한국발 1만4978명, 해외발 8만6022명 등 10만명을 웃돌았다.

항공권을 취소한 국제선 이용객은 대부분 중국인과 일본인이다.

이에 양사는 으뜸과 버금 시장인 중국과 일본을 겨냥해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대한항공은 8~21일 중국 취항도시의 여행사 대표와 언론인 등 300명을 초청해 팸투어 행사를 진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한항공은 이달 말부터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행 팸투어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관광객 유치라는 특명을 맡은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은 15일 중국 베이징으로 날아가 현지의 대형 여행사 총재들을 잇달아 만나며 중국여행객의 한국방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20일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일본 아오모리 취항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일본 측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 여행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시아나 역시 중국 대표 여행사 사장단 150명과 언론인 40명, 파워블로거 10명 등 총 200명을 한국에 초청한다. 이들 방한단은 15~18일 서울에 머무르며 한강유람선 관광, 제2롯데월드 방문, 명동 걷기 등의 체험을 하게 된다.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참할 예정이다.

아시아나는 중국 24개 도시, 32개 노선으로 취항국가 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영 중이다.

중국은 전체 여객 매출의 18.9%를 차지해 단일 국가 중 가장 큰 시장이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전년 여객 매출 대비 1.6% 성장세를 유지하던 중국 시장은 메르스로 인해 이달 초까지 아시아나만 약 3만명의 중국인이 예약을 취소하는 등 급속히 관광 수요가 줄어든 바 있다.

사측은 한국관광공사 통계상 외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1% 감소하는 등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수천 아시아나 사장은 “공공과 민간 기관이 힘을 모아 기획한 이번 행사는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중국인에게 메르스 종식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요우커도 예전처럼 안심하고 한국을 찾으리라 기대하면서, 성공리에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쌍용차 티볼리 디젤 서킷주행. /쌍용차 제공

서킷서 미끄러지자 속도·중심 스스로 제동

| 시승기 | 티볼리 디젤

차량제어시스템 안전성 ↑
응답력 빠른 핸들링 인상적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쌍용자동차 '티볼리 디젤' 모델로 서킷 위를 달려보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임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스포츠카 못지않은 힘이 느껴졌다.

티볼리 디젤은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완성된 고성능·고효율의 유로6 e-XDi160 엔진이 탑재됐다. 1.6ℓ의 엔진은 최고출력 115마력, 최대토크 30.6kg·m 성능을 낸다.

지난 6일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서킷과 인근 도로에서 티볼리 디젤 모델을 시승했다.

직선코스에서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지만 초기 가속도는 다소 힘이 달리는 듯 했다. 하지만 강력한 토크가 차의 속도를 100km/h 이상으로 빠르게 끌어올렸다. 기본 탑재된 아이신사 6단 변속기는 고속 주행에서 부드러운 변속감이 느껴졌다. 곧바로 이어진 곡선코스에서도 속도를 최대로 유지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차가 조금 미끄러지자 스스로 속도와 차의 중심을 제어했다. 동승했던 전문 인스트럭터는 차량 자세 제어 시스템(ESP)과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이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차체의 움직임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인제 스피디움 인근 도로 25km 주행에서는 효율이 높은 연비와 빠른 응답력의 핸들링이 인상적이었다.

강원도 국도의 특성상 곡선 구간이 많아 공인연비 15.3km/ℓ에 못 미치는 연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주행한 후 확인한 연비는 15.6km/ℓ이었다.

티볼리 디젤의 토크는 주행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1500~2500rpm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곡선 구간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응답력이 좋은 스티어링 휠은 주행의 재미를 더했다.

실내 내장제도 깔끔하게 마감됐다. 동승자와 인스트럭터를 포함해 178cm 가량의 성인 남자 3명이 앞·뒤 좌석에 앉았는데도 좁지 않았다. 최대 423ℓ의 적재 공간은 골프백을 3개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

편의 사양으로는 멀티링크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HDMI) 단자가 추가돼 스마트기기의 영상과 음향을 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2045만~2495만원에 책정됐다. 디젤 모델은 가솔린 대비 250만원 정도 인상됐다.

/인제=정용기기자 yonggi@

현대차, 전통시장에 100억 쏜다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내수활성화 추진

현대자동차그룹은 메르스 극복을 위한 할부 유예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 데 이어 2단계 내수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딜러·고객 초청 행사와 우수 사원 한국 연수 등 해외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7~11월 집중적으로 국내에서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내수 진작과 외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이 재개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대차가 주관하는 50여개국 우수 정비사 월드 스킬 올림픽, 30여개국 CS(고객 만족) 담당자 세미나, 기아차가 주관하는 30여개국 우수고객 초청 행사, 전세계 주요 대리점 AS(사후서비스) 책임자 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신규 딜러 한국 초청 세미나, 딜러단 한국 방문 등 해외 현지 딜러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중국 딜러와 현지 우수사원 한국 연수 등 중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행사도 실시해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확대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지원 차원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한다.

현대차그룹 측은 “해외 딜러·고객 대상 국내 행사 개최, 그룹 임직원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기아차 ‘신형 K5’ 11일만에 사전계약 6000대

기아자동차는 신형 K5의 사전계약 영업일수 11일 만에 계약대수가 6000대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K5의 올해 상반기 월 평균 판매량이 3300여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2배 넘는 계약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전계약 고객 중 2030세대가 약 45%(20대 15%, 30대 30%)를 차지했다.

젊은 고객 비중이 높아진 결과 사전 계약 차량 중 스마트 편의사양이나 디자인 패키지 등 특정 사양에 대한 선호도 두드러졌다.

‘내비게이션 유보(UVO) 2.0’은 신형 K5 사전 계약 고객 중 절반 가까이(47%)가 선택했다.

특히 주력 트림인 프레스티지 이상의 모델에서는 계약 고객 3명 중 2명(65%)이 선택했다.

‘내비게이션 유보(UVO) 2.0’은 스마트폰 연동을 통한 원격시동, 공조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기아차는 신형 K5의 사전 계약 고객 중 79%가 주력 트림인 프레스티지 이상급을 계약했다고 전했다.

주력 트림인 프레스티지 모델에서 HID 헤드램프와 18인치 휠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스타일2’ 옵션은 42% 이상이 계약했다.

신형 K5는 ‘K5 MX’와 ‘K5 SX’의 2가지 모델로 출시됐다.

신형 K5의 가격은 ▲2.0 가솔린은 2245만~2870만원 ▲1.7 디젤은 2480만~2920만원에 책정됐다.

/정용기기자

대우인터내셔널

中서 폴리실리콘 공급 체결

대우인터내셔널(사장 김영상)과 한국실리콘(회장 윤순광)은 7일 중국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SF-PV(順風光電)그룹과 3500만달러 규모의 태양광전지용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공급계약 건은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중국 내 태양광 시장의 수요 증가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규 고객사 발굴을 위한 밀착 영업을 통해 일궈낸 쾌거”라며 “SF-PV그룹은 중국 태양광 산업의 최우수 선도기업으로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양사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등 회사의 6대 전략사업인 IPP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은정기자

엘리엇,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KCC '삼성물산 의결권' 행사 가능에 엘리엇 소액주주 위임장 등 반격나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법원이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는 바이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의 백기사 KCC는 오는 17일 열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은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이 삼성의 손을 두 차례 들어줬지만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는 합병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표대결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17일 열릴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내용을 공시하며 우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엘리엇에 위임장을 보내거나 기업지배구조컨설팅업체 네비스탁에 의결권을 위임하며 합병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현대엘리베이터
한국타이어 美 공장서 물류자동화시스템 수주

현대엘리베이터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있는 한국타이어 신공장의 반제품 자동창고와 물류자동화 시스템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수주 규모는 1995만 달러(한화 약 224억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연말까지 천장주행방식 대차(SKY 라브) 72대와 스태커 크레인 28대, 컨베이어 등을 적용한 물류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 첫 물량을 선적할 계획이다.

물류자동화설비 부문은 현대엘리베이터의 비승강기 부문 주력 사업으로 1989년 시장 진출 이래 성장을 거듭, 지난 2013년에는 매출액 894억원을 기록하며 국내시장점유율 1위(36%)를 차지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알라바마 현대자동차, 조지아 기아자동차 등의 미주 공장 물류자동화 공사를 수행했다.

지난 2013년 7월에는 수주한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물류자동화 공사도 성공리에 마쳤다.

현대엘리베이터 물류자동화설비 부문은 물류자동화 컨설팅을 시작으로 엔지니어링, 공정물류시스템, 상품물류시스템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201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종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국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물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LGD "메르스·가뭄 훌~훌 털자"

수박 구매·일손돕기 등 지역사회 돕기 팔 걷어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한상범)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에 빠진 사회·경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후유증을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에 빠진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여름을 맞아 수박 1560통, 2000만원어치를 직접 구입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또 메르스와 가뭄으로 이중고를 겪는 구미지역 마늘농가를 찾아 수확작업을 도왔다.

신입사원 120여명은 구미 사업장 인근 경상북도 선산군 생곡리 멜론농가를 찾아 작업을 도울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경기도 파주 사업장 내에 경기 지역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오픈해 판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농가를 도왔다.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박 1560통을 직접 구입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또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특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상시 판매할 계획이다.

협력사의 재정부담을 분담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총 4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직접 대출해주는 '유 드림(You Dream)'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협력사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최대 10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방침이다.

낮은 우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기존의 동반성장펀드(1750억원)를 감안하면 21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시민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현대重·GE, 가스터빈엔진 LNG운반선 개발

배기가스 처리장치 없이 환경규제 만족

현대중공업은 영국 로이드선급협회로부터 제너럴일렉트릭(GE)사의 가스터빈시스템을 장착한 17만4000㎥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LNG운반선은 GE 가스터빈 기반의 새로운 'COGES'이 적용돼 선가를 낮추고 선박 능력을 향상시켰다.

가스터빈엔진 LNG운반선은 별도의 배기가스처리장치 없이 환경규제인 IMO Tier Ⅲ를 만족시켜 처리장치의 투자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17만4000㎥ LNG운반선에 적용 시 약 200억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현대중공업은 전했다.

또 가스터빈엔진은 기존 엔진에 비해 무게를 최대 60% 줄일 수 있어 선박 운영비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점화연료가 필요 없다.

GE의 가스터빈은 그동안 전력생산, 해상플랫폼 등에 적용돼 가스 운영시간만 7000만 시간이 넘는 등 안정성을 증명했다.

신현수 현대중공업 전무는 "이번 가스터빈엔진 LNG운반선은 세계 최고의 선박기술력을 가진 현대중공업과 가스터빈 분야 선도기업인 GE의 합작품"이라며 "앞으로 대형 컨테이너선에도 적용하는 등 꾸준한 기술 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수 현대중공업 전무(왼쪽 여섯 번째)와 제레미 반스 GE 마케팅 총괄(왼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로부터 기본승인(AIP)을 획득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브라이언 볼싱어 GE항공 마린사업부 부사장은 "GE의 가스터빈엔진 기술을 장착한 LNG 운반선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AIP를 받음으로써 현대중공업과 함께 세계 시장에 가스터빈엔진 LNG운반선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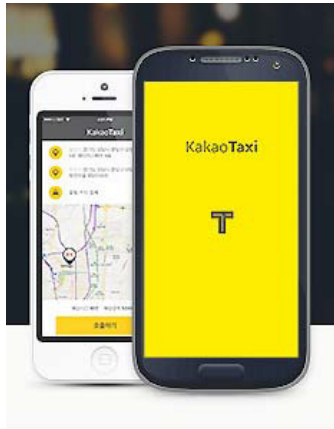
다음카카오, 카카오택시 타고 고속 질주

콜택시 시장 70% 장악 '채널' 등 신 사업 호재 주가 13만8400원 껑충

모바일 실생활 플랫폼 장악에 나선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택시의 흥행과 다음과의 합병시너지, 신서비스 출시 등의 호재로 기업 가치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

7일 다음카카오는 13만8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10거래일동안 상승세를 타면서 주가가 3만원 이상 올랐다. 반등이 일어난 날은 지난달 23일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채널'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날이다. 다음카카오 주가가 뛰어올라 14만원대에 육박하면서 시가총액도 8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런 다음카카오 진격의 공을 세운 서비스 중 하나는 카카오택시다. 출시 3개월 만에 하루 평균 12만 건의 접수와 누적 호출수가 500만 건을 돌파했다. 카카오택시는 이미 콜택시 시장의 70%를 장악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는 생활 속 친숙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카카오택시에 이어 하반기에는 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택시 뿐만 아니라 다음카카오는 합병 전부터 최대 과제로 꼽혔던 포털 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의 연계 작업을 최근 '샵 검색'과 '채널'을 통해 마무리했다. 지난달 30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샵 검색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해쉬태그) 명령어로 바로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다. 채널 서비스는 '빠른' 검색과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구현한 카카오톡 내부 검색 서비스다. 예컨대 '엘리엇'이라고 입력하면 관련된 뉴스와 백과사전 트위터 등의 내용이 바로 화면에 나타나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ㅋㅋ바'라고 치면 ㅋㅋ바 아이스크림 이미지가 등장하는 등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모바일 은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움직이고 있으며 최적의 금융 파트너사를 물색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연내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고 금산분리 완화를 하는 등 사실상 핀테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선봉 역할을 다음카카오가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과 카카오가 시너지를 낼 거라 생각했던 최대의 부분이 바로 검색과 콘텐츠 공급"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시작한 검색과 '채널' 서비스 이후 성장을 지켜볼 만 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다음카카오 홍보파트장은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사업 전략에 따라 사용자에게 모바일 삶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 시장에서 전에 없던 시도를 꾸준히 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크라이슬러가 7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뉴 크라이슬러 300c를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 시대 리더들을 위한 차!"

FCA, 뉴 크라이슬러 300 출시… 4480만원부터

FCA 코리아는 '뉴 크라이슬러 300C'를 7일 출시했다.

출시 모델은 후륜구동 모델인 '뉴 크라이슬러 300C'와 4륜구동 모델인 '뉴 크라이슬러 300C AWD'의 2개 트림이다.

판매 가격은 뉴 크라이슬러 300C는 4480만원, 뉴 크라이슬러 300C AWD는 5580만원이다.

뉴 300C의 3.6ℓ 펜타스타 V6 엔진은 최고출력 286마력, 36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토크플라이트 8단 자동변속기는 효율적인 동력을 전달한다.

뉴 300C의 복합연비는 9.2km/ℓ, 뉴 300C AWD는 8.7km/ℓ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초당 13회씩 조향 각도, 차량 속도, 엔진 RPM, 섀시 컨트롤 시스템 등을 분석해 정밀한 스티어링 감각을 제공한다.

뉴 300C에는 정지 기능이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등 80가지 이상의 안전·편의 장치가 탑재됐다. 또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 등의 편의 사양도 있다.

뉴 300C의 전면은 더 커진 그릴은 크롬으로 장식됐다.

옆모습은 프론트 휠 아치에서 리어 휠 아치로 흐르는 숄더 라인이 강조됐다.

후면은 발광다이오드(LED) 테일 램프가 장착됐다.

뉴 300C의 내부는 블랙 올리브 애쉬 벌 우드 트림이나 무광 모카 리얼 우드 트림, 나파 가죽 시트 등 프리미엄 소재와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파블로 로쏘 FCA 사장은 "뉴 크라이슬러 300C는 강렬한 존재감과 자신감으로 성공한 삶을 만들어낸 이 시대 리더들을 위한 차"라며 "합리적인 가격과 만족도를 원하는 고객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비콘으로 교보문고 방문혜택 받으세요"

SKT, 위치기반 서비스 상용화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의 비콘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상용화됐다.

SK텔레콤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체크인 기능에 최적화된 비콘을 약 60여 개 설치하고 7일부터 광화문점 방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보문고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인 윙크(WingK)와 모바일 교보문고 앱을 설치한 고객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적용된 기술은 SK텔레콤의 위치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위즈턴의 '체크인' 솔루션이다. 매장 접근 시 고객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자동으로 켜고, 매장에서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날 경우 블루투스를 자동으로 끌 수 있다. 매장 내 10~20m 내외의 구역별로 개별 설정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펜스'기능을 바탕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내 모델들이 교보문고내 비콘 활용 위치기반 서비스 상용화를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윙크는 고객이 매장 내 이동 시 구역별 특화된 서비스를 잠금화면을 통해 제공한다. 고객이 처음 매장을 방문할 때 감사 이벤트를 고지하고, 매장 내 특정 구역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한 전자도서(eBook)을 제공한다. 또한 소설, 핫트랙스 등 특정 구역에서는 그 특성에 맞는 정보 및 할인쿠폰 등 혜택을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BLE(Bluetooth Low Engergy) 기반의 안드로이드 4.3버전 이상 안드로이드 폰에서 우선 제공된다. 향후 iOS 7 이상의 스마트폰과 타지역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문경기자

BMW '뉴 7시리즈 클로즈드룸' 개최

VIP 고객 대상

BMW코리아는 오는 24일까지 VIP 고객을 대상으로 '뉴 7시리즈 클로즈드룸'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VIP 고객들이 정식 출시 전 BMW 뉴 7시리즈의 프리미엄과 혁신 기술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1:1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도심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 VIP 라운지 서비스, 차량 관람, 비스포크 핸드메이드 가죽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뉴 7시리즈는 경량화, 주행 역동성, 안락함, 지능형 연결성, 조작성 등 12가지 혁신기술이 적용됐다.

BMW는 오는 24일까지 '뉴 7시리즈 클로즈드룸'을 개최한다. /BMW 제공

차체 구조에 적용된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최신 엔진, BMW 레이저라이트, 제스처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 파킹,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등 편의사양과 효율성, 안전성을 높여주는 기술을 보여준다.

/정용기기자

이번엔 노조 탄압… 홈플러스, 노사 갈등 격화

노조 간부 표적탄압 징계시도 규탄 기자회견 열어
홈플러스 "정당한 제보 경로… 불법태업 지시 명백"

홈플러스(대표 도성환)와 홈플러스 노동조합(위원장 김기완)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번엔 '노조탄압'사건을 두고 양측이 맞붙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7일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노조원 표적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 측은 사 측이 노조원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시도했고 이를 갖고 노조를 흔드는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1월 홈플러스 영통점에서 계산 작오를 한 직원에게 홈플러스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2년전 홈플러스노 노조가 성립되며 폐지됐던 사유서 제출을 사측이 요구하자 1월 24일 최형선 홈플러스 노조 경기본부장은 노조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계산 스캔 속도를 낮추자는 발언을 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당시 최형선 본부장은 사유서 강요로 인해 분노한 가운데 해당 글을 작성했으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잡지 않았고 답장 또한 없었다.

석 달 뒤인 4월 29일 홈플러스 감사팀에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최 본부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혐의는 '불법태업 지시'였다. 이달 2일 홈플러스는 최 본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했다.

홈플러스 노조 김동우 경기본부 사무국장은 "이는 최근 매각설을 묻기 위한 홈플러스의 노조 흔들기"라며 "반년 전의 일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본부장을 징계한다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며 가장 활발한 노조원부터 쳐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당 대화 내용의 제보 경로를 밝히지 못하는 홈플러스가 불법사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홈플러스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제보를 접수했으며 현재 감사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찰이나 표적징계, 노조 흔들기라는 명목으로 내부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면 노조 스스로가 공정성과 도덕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당사가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노조도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빙수 한 그릇이 밥 5공기 열량
카페베네 '초코악마' 1312㎉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 각종 빙수의 열량이 흰쌀밥 몇 공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햄버거·베이커리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빙수 열량이 최소 260㎉ 이상으로, 200그램(g)기준 흰쌀밥 한 공기(250㎉)보다 높았다.

조사대상 32개 중 열량이 가장 높은 빙수는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의 '초코악마'였다. 총중량 926g으로 열량은 1312㎉에 달했다. 흰쌀밥 다섯 공기를 웃도는 수준이다.

카페베네의 쿠키앤크림 빙수(823g·1249㎉)와 팥빙수(830g·1059㎉)도 각각 1000㎉를 훌쩍 넘어섰다.

비만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녹차를 함유한 일부 빙수도 칼로리가 '폭탄'급이었다. CJ 베이커리 제과점 뚜레쥬르의 '녹차 스노우러빙'은 총중량이 690g으로 열량이 950㎉이었다. 포화지방도 9g이나 함유하고 있어 한 그릇을 모두 먹었을 경우 성인기준 포화지방 하루 권장량의 60%를 섭취하게 된다. 녹차 함유 일부 빙수의 칼로리가 높은 이유는 씁쓸한 맛의 녹차를 희석하기 위해 당 성분이 많은 다른 재료를 첨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의 아이스리얼 빙수 열량은 772㎉로 나타났다. 치즈딸기빙수 열량은 804㎉, 아이스민트초코빙수는 800㎉를 기록했다. 뚜레쥬르의 팥스노우러빙 775㎉, 롯데리아 달콤한 젤리빙수 737㎉, 엔제리너스 홍시빙수는 720㎉였다.

열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빙수는 엔제리너스의 유자몽빙수로 260㎉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열량이 흰쌀밥 한 공기를 웃돌았다. /박상길기자 sweatsk@

농협유통, '초복맞이' 첫 출하 복숭아 판매 농협유통(대표 조영조)이 초복을 앞두고 첫 출하된 황도·백도 복숭아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13일까지 첫 출하된 황도·백도 복숭아를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농협유통 제공

오픈마켓, 구매후기·항의성 글 삭제

신학용 의원, 11번가·옥션·G마켓 게시글 삭제현황 공개

11번가, 옥션, G마켓 등 국내 3대 오픈마켓에서 구매후기나 상품 Q&A게시판에 게시되는 항의성 글을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오픈마켓 구매후기 등 고객 게시글 삭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1번가는 3257건, 옥션은 602건, G마켓은 501건의 구매후기를 지웠다. 상품 Q&A게시판 삭제 건수는 11번가가 4만1879건, 옥션이 1623건, G마켓이 1424건이었다.

이처럼 오픈마켓이 고객의 글을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이유는 '약관'에 있다. 실제 한 오픈마켓의 약관을 보면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해당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을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삭제의 근거가 되는 '부적절'이라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오픈마켓이 약관을 이용해 좋은 고객평만 남겨두며 사실상 이를 만족도 관리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현재 구매후기와 상품 Q&A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오픈마켓 회사에서 모두 임의로 삭제 가능하다. 11번가 상품 Q&A게시판의 경우에는 물품 판매자에게도 게시글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제 상품 구매후기를 봐도 불만족 관련 글은 현저히 적다. 11번가의 경우 작년 전체 구매후기 중 불만 글은 1.9%에 불과했다. 옥션과 G마켓 역시 추천안함 글이 0.6%, 1.5%에 그쳤다. /윤정원기자 garden@

9~10일 인천공항공사서 시내면세점 PT 심사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프레젠테이션(PT) 심사가 오는 9~10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7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입찰 업체와 심사위원 등의 편의를 고려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PT 심사가 진행된다.

PT는 9일 오전 8시 중원산업·유진디에프엔씨·파라다이스·SM면세점 등 중소·중견제한경쟁입찰 14개 기업부터 시작한다. 후보자들은 각 5분간 발표한 뒤 2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일반경쟁입찰 대기업 후보군은 신세계DF(신세계)를 시작으로 현대DF(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K네트웍스·이랜드·호텔롯데·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순이다.

PT에는 각사 면세사업 대표들이 직접 나선다. 신세계DF는 성영목 대표가, 현대DF는 이동호 대표가 나서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황용득 대표, SK네트웍스는 문종훈 대표가 PT를 맡는다. 이랜드는 노종호 대표, 롯데는 이홍균 대표가 PT에 참석한다. HDC신라면세점은 현재 양창훈, 한인규 두 공동대표가 PT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종 참석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10일 오전 제주도 중소중견제한경쟁 입찰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은 대기업 2곳·중소중견 1곳 등 3곳, 제주는 중소중견 1곳을 선정한다. /박상길기자

아워홈, 후계 1순위 해임… 승계구도 안갯속

구지은, SNS 통해 "모략질" 업계 안팎 내부갈등설 솔솔 장남 본성씨 경영 나설지 주목

<구지은 부사장>

구지은 아워홈 부사장(48·사진)이 승진 약 5개월만에 보직 해임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워홈은 올해에만 두차례나 CEO(최고경영자)가 교체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 경영진 내부 갈등설?

구 부사장의 이번 인사에 대해 업계 안팎에선 내부 갈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 부사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의 승리~. 평소에 일을 모략질만큼 긴장하고 열심히 했다면, 아워홈이 7년은 앞서 있었을 것. 또 다시 12년 퇴보. 경쟁사와의 갭은 상상하기도 싫다. 11년 만에 안식년, 감사하다"는 글을 올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외부는 인정, 내부는 모략. 변화의 거부는 회사를 망가뜨리고 썩게 만든다"며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만 하는 인재들은 일 안하고 하루종일 정치만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글은 현재 지워진 상태다.

구 부사장이 올 2월 직접 영입한 김태준 전 대표이사도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6월 명확한 이유없이 그만뒀다. 김 전 대표는 CJ제일제당 부사장 출신의 마케팅 전문가다. 이승우 전 사장이 임기 2년을 남기고 지난 1월 갑작스레 물러나며 구 부사장이 자기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됐다. 현재 아워홈은 이종상 아워홈 급식사업부 상무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구 부사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CJ 출신의 노희영 전 고문 역시 최근 아워홈의 인천공항 식음료 사업 총괄에서 YG푸드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 승계구도 향배는?

구지은 부사장이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아워홈의 승계 구도는 불투명해졌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3남 구자학(85) 회장의 1남3녀 가운데 막내딸인 구 부사장은 오너 일가 중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해 차기 경영권 승계 1순위로 주목받았다. 범 LG계열 기업 구씨 일가중 딸이 경영에 참여한 사례는 구 부사장이 처음이었다. 구 부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삼성인력개발원과 컨설팅업체 왓슨와이트코리아 수석컨설턴트를 거쳤다. 2004년 구매물류사업부장으로 아워홈에 입사, 외식사업을 진두지휘하며 5000억원대였던 아워홈 매출을 지난해 1조3000억원까지 끌어 올렸다. 2010년 전무로 승진한 뒤 올해 2월 부사장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아워홈의 외식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구 부사장의 보직 해임으로 아워홈 최대주주이자 구 회장 장남인 구본성(58) 씨가 경영 일선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본성씨는 지난해 기준 지분 38.56%(880만주)를 보유한 아워홈의 최대주주다. 구 부사장이 20.67%, 언니 구미현(55) 씨와 구명진(51) 씨가 각각 19.28%, 9.6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아워홈 측은 구 부사장의 보직 해임과 관련 "회사 내부의 일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홈플러스, 장마용품 반값 할인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29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에서 우산과 우비·장화 등의 장마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플로렌스&프레드 여성 라이트 프린트 우위 1만9900원, 아동장화 6450원, 성인장화 1만4950원·1만9950원, 젤리슈즈 9900원 등에 판매한다. 우프로렌스&프레드 캔디팝·네온팝 우산은 각각 7900원, 4900원이다. /김성현기자 minus@

"장난감·신발도 팔아요" 유아복, 저출산 극복 안간힘

제로투세븐, 수입브랜드 확대 한세드림·아가방, 편집숍 오픈

유아동복 업계가 저출산과 불황에 침체된 국내 시장에 대한 타개책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통을 다각화하는 한편 수입 상품을 늘리며 상품 구색을 확대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로투세븐은 올해만 2개의 수입 브랜드를 내놓는다. 지난 2월부터 온라인 몰에서 판매해온 미국 브랜드 '츄즈'는 제로투세븐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키즈 신발 브랜드다. 헐리우드 스타 브래드피트와 안젤리나졸리 부부의 자녀인 샤일로가 신어 유명세를 탔다. 국내에는 스니커즈부터 메리제인·플랫 슈즈 등 총 8개 스타일의 신제품을 선보인다.

8월엔 승용완구 Y볼루션을 독점 판매할 예정이다.

유통 다각화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트렌드가 유아용품 업계로 번지면서 편집숍 중심의 유통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가방앤컴퍼니는 편집매장인 넥스트맘을 통해 프랑스 유아완구 브랜드 '드제코' 판매존을 갖추고 있다.

한세드림은 스포츠 의류와 신발을 취급하는 멀티숍 '플레이키즈 프로' 1호점을 이달 중에 연다. 연내 10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세드림은 자사 브랜드 모이몰른과 컬리수로 구성된 복합매장을 운영해온 적은 있지만 직수입 브랜드만 한 곳에 모은 멀티숍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이키 에스비·조던·컨버스 등 3개 브랜드의 의류를 중심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4~18세까지를 타깃으로 해 기존 영유아에서 청소년으로 타깃층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아가방앤컴퍼니는 편집매장 넥스트맘을 통해 프랑스 유아 완구 브랜드 '드제코'와 키즈룸 데코레이션 브랜드 '리틀빅룸'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드제코는 체험완구 전문기업 큐이디에서 국내 공식 수입을 맡고 있다. 신규 상품을 추가하면서 교육·인테리어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 자리에서 여러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비교해서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편집숍이 뜨고 있다"며 "엄마들의 쇼핑이 편집숍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유통이 침체된 유아 시장의 타개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웅진식품 '스위토리' 론칭… 제과시장 노크

초콜릿·껌 등 6종 출시 종합식품회사 도약 승부

웅진식품(대표 최승수)이 제과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웅진식품은 종합식품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제과류 브랜드 '스위토리(Sweetory)'를 론칭한다고 7일 밝혔다. 스위토리는 달콤한 이야기를 뜻한다.

브랜드 론칭과 함께 나온 제품은 아몬드 초코볼(1500원)과 해바라기 초코볼·펀스톤 초코렛·믹스 초코볼(각 1000원) 등 초콜릿 4가지, 매우신껌(1000원)·졸음 확 깨는 껌(3500원) 등 껌 2가지다.

아몬드 초코볼과 해바라기씨 초코볼은 고소한 통아몬드와 해바라기씨를 부드러운 초콜릿으로 감싸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펀스톤 초코렛은 조약돌 모양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 코팅 초콜릿이다. 믹스 초코볼은 세 가지 초코볼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 혼합 포장한 믹스 초콜릿 제품이다.

매우신껌은 짜릿함이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신맛이 특징이다. 졸음 확 깨는 껌은 천연 식물성 카페인 성분인 과라나와 시원한 민트향으로 수면을 조절해야 하는 수험생이나 운전자들에게 좋다.

웅진식품 관계자는 "지난해 대영식품을 인수하고 글로벌 감자칩 브랜드 크레이즈바이트의 유통을 맡으며 제과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며 "음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졌던 웅진식품이 종합식품회사로 커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웅진식품은 지난해 초콜릿과 코팅껌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인 대영식품을 인수하며 제과시장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1984년 설립된 대영식품은 품질기준이 까다로운 일본시장에 다양한 초콜릿과 껌 제품을 수출하며 성장해 온 회사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롯데주류, 국제 식품안전인증 획득

강릉·군산·경산공장

롯데주류(대표 이재혁)는 강릉·군산·경산공장이 국제식품안전협회로부터 식품안전인증(FSSC 22000)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안전인증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등 식품안전경영을 위한 인증요건과 식품 테러 대응, 현장관리 등 국제식품안전협회의 권고 사항을 더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안전 관련 인증제도다.

롯데주류는 2006년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ISO9001', 2008년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 'ISO14001'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그룹으로 편입된 2009년부터 약 72억원을 투자해 공장 내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공장 위생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류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식품안전인증을 받은 강릉공장은 소주를, 군산공장은 청주를, 경산공장은 와인과 과실주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위스키를 생산하는 부평공장의 경우 지난 2012년에 이미 식품안전인증(FSSC

22000)을 획득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언급할 만큼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식품업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카자흐에 의료기술 노하우 전수

이대여성암병원

동 카자흐스탄 보건국 초청
환자 유치 등 교류 활성화 논의

백남선 병원장이 동카자흐스탄에서 우수 의료기술 노하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화여대 여성암병원 제공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이 지난달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동 카자흐스탄 보건국의 초청으로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Ustkamenogorsk) 지역을 방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우수 의료기술을 전파했다.

먼저 백남선 병원장은 알파라비 국립대를 방문해 안 에브게니 부총장과 교류 협력과 우수 의료기술 전수에 관해 논의했다.

이후 백남선 병원장은 동 카자흐스탄 암센터를 방문해 2례의 유방암 수술과 갑상선암 수술 1례를 직접 시연했다. 이어 현지 의료진과 학생에게 우리 나라의 최신 유방암 수술법과 최신 지견에 대해 강연해 주목을 받았다.

백남선 병원장의 적극적인 행보는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신문사 'Rudny Alta',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TV, East State 카자흐TV 등에 집중 소개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백남선 병원장은 "수술 시연과 강연 알파라비 국립대 방문 등 바쁜 일정이었지만 카자흐스탄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교류 협력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에서 인지도 상승은 물론 카자흐스탄 환자 유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가족·커플 맞춤형 '서머 패키지' 3종

르네상스 서울 호텔

수영장 무료 등 내달 31일까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총지배인 마크웰렌)이 가족과 커플 등 대상에 맞게 필요한 아이템으로 구성된 샤이니·써니·퍼니 등 3종의 서머 패키지를 8월 31일까지 선보인다.

각 패키지에는 공통으로 유리돔을 통해 비치는 자연광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장 이용·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사우나 2인 50% 할인 등이 제공된다.

'샤이니 서머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과 기본 공통혜택을 포함해 18만원부터다. '써니 서머 패키지'는 기본 공통혜택과 함께 디럭스룸 1박·카페 엘리제 2인 무료 조식·야외 가든 벤돔 바비큐 패키지 15% 또는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 저녁 식사 25% 할인 중 하나의 혜택이 제공된다. 메가박스 영화 티켓 2매·객실 내 무료 인터넷 혜택도 포함됐다. 가격은 23만원부터다.

'퍼니 서머 패키지'는 샤이미 서머 패키지 혜택에 트레비 라운지 이용·르네상스 빙수 1개가 추가된다. 이외에도 태국 럭셔리 스파 브랜드 'THANN' 여행용 트래블 키트 5종 1개를 포함해 25만원부터 제공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

샘케이 '더블이펙트' 사면 마스크팩은 덤

내달 30일까지 출시기념 이벤트
홈페이지 구매 고객 전원 증정

'더블 이펙트' 썬 라인 출시기념
비타민C마스크 정품 증정 이벤트

내추럴 스킨 사이언스 코스메틱 샘케이가 신제품 '더블이펙트' 라인 출시를 기념하며 비타민C 마스크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8월 30일까지 열린다. 샘케이 공식 홈페이지(www.samkcosmetics.com)에서 신제품 더블 이펙트 라인을 구매하는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증정되는 'VC캡슐™ 컨센트레이트 마스크'는 국내 유일의 비타민C 안정화 특허 기술로 탄생한 VC캡슐™을 함유한 하이드로겔 마스크로 자외선으로 인한 칙칙한 톤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파라벤, 인공색소, 광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 벤조페논 등 피부에 유해한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5-Free 처방'으로 민감해진 여름철 피부를 자극 없이 진정시켜준다.

샘케이 마케팅팀은 "뜨거운 여름철, 강렬해진 자외선으로부터 고객들의 피부를 보다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비타민C 마스크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외출 전에는 샘케이 더블 이펙트 라인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외출 후에는 비타민C 마스크로 피부를 진정시켜 여름 자외선에도 자신 있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출시된 샘케이 더블 이펙트 라인은 피부 겉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자외선 차단 성분의 배합으로 강력한 자외선 차단효과를, 피부 속에서는 VC캡슐™로 자외선 저항력을 키워줘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산소까지 분해해준다. 3중 기능성 (미백 및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 인증 제품으로 피부의 톤, 탄력, 결까지 관리해 준다.

/최치선기자

상명대, 2015년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맞춤형 교육과정 로드맵 '우수'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는 6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5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이하 ACE사업)에 선정됐다. ACE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 학부교육 선도모델의 창출과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에는 전국 총 16개 대학이 신규로 인정받았다 .

상명대는 7.6: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 본 사업에서 지난 5월과 6월, 사업신청과 함께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16개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 양성'이라는 올바른 인재상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자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를 개선하고 개편하는모델이 주요 우수한 사업내용으로 평가받았다.

이로서 교육부 선정 최우수대학이라는 명예를 수년전부터 이어온 상명대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게 되었다.

상명대는 수도권 중소규모의 대학으로서 서강대, 서울시립대와 함께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4년간 약 76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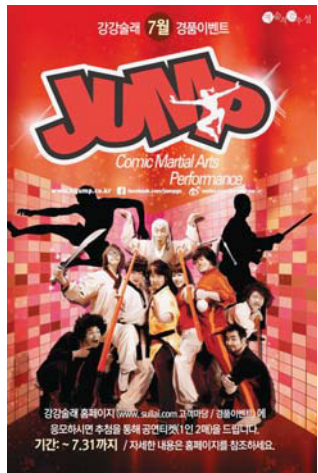
/최치선기자

강강술래 "2인분 시키면 1인분 더 드려요"

해피아워 이벤트

가족모임·회식 알뜰모임 지원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가족외식이나 회식 등을 알뜰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동안 특정메뉴를 할인 판매하는 해피아워 이벤트를 벌인다.

청담점은 이달 31일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술래정식·민속양념정식을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제공한다.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는 본갈비·술래양념·일품양념·민속양념 구이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더준다. 한우갈비살 주문 시 테이블당 한우육회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오후 9시 이후 신림점은 강강·술래양념구이를, 시흥점은 강강술래·한돈·돼지양념구이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 또 오후 8시30분 이후에 홍대점은 한돈·돼지·술래양념·쇠고기한판을, 늘봄농원점은 왕양념갈비·강강·술래·한돈·돼지양념 메뉴 2+1 행사를 벌인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국내와 세계 40여 개국 120여 개 도시 1만여 회 공연으로 500만명 이상의 관객을 열광시킨 넌버벌 뮤지컬 '점프' 공연티켓(1인2매)을 증정한다.

점프는 무술 고수 가족의 집에 엉뚱하고 귀여운 도둑들이 들어와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대사 없이 생생한 라이브 액션과 절묘한 코믹 연기를 통해 요절복통 웃음을 선사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동국대, 내년 재외국민전형 10.37 대 1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는 201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재외국민전형 원서접수 마감결과 54명 모집에 총 560명이 지원해 10.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동국대는 수시모집 6회 제한 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모집단위별로는 ▲자연계가 11.08 대 1 ▲인문계는 10.21 대 1 ▲예체능계는 9 대 1을 나타냈다.

학과로는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16 대 1 ▲화공생물공학과가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동국대는 일반재외국민·재외국민·새터민 전형 모두 1단계 필답고사 성적으로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성적 80% ▲면접 2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필답고사는 인문계와 영화영상학과의 경우 ▲영어 60% ▲국어 40%를 합산해 반영하며 자연계는 ▲영어 60% ▲수학 40%를 반영한다.

이어 필답고사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면접고사는 일반면접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국대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지원자격별로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외국 영주교포 자녀·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등을 정원 외로 54명 ▲재외국민·새터민 전형 역시 정원 외로 각각 54명씩 선발한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오는 19일 필답고사를 실시해 28일 면접고사, 8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현명기자 hmbok@

star bag

7개월 만에 결별

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로 만나 연인이 된 배우 **박한별, 정은우** 커플이 7개월 만에 결별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에 따르면 박한별과 정은우는 최근 바쁜 스케줄로 자주 만나지 못했고 공개 연애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의견이 엇갈려 이별을 결심했다.

'루시드 드림' 크랭크업

고수, 설경구, 강혜정, 박유천 주연의 영화 '루시드 드림'이 지난달 29일 3개월 동안의 촬영을 마치고 크랭크업했다. 설경구는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고생했다. 그만큼 좋은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수는 "최고의 스태프, 감독, 배우들과 함께 해서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년 만에 내한공연

록 밴드 **본 조비**가 오는 9월 22일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내한공연을 연다. 1995년 첫 내한공연 이후 20년 만의 내한 공연이다. 리더 존 본 조비는 "20년 만에 한국 팬과 다시 만나게 돼 너무나 기쁘다. 9월 22일에 만나자"는 인사말로 내한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웹드라마서 호흡

그룹 B1A4 멤버 **바로**와 **산들**이 웹드라마 '로스:타임:라이프'에 캐스팅됐다고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가 7일 밝혔다. 2008년 일본 후지TV에서 방영된 동명 드라마가 원작이다. 바로는 인기 톱 아이돌 래퍼 역을, 산들은 어머니에게 반항 한 번 한 적 없는 착한 아들 역을 맡았다.

편안하고 매력적인 배우 될래요

영화 '메이드 인 차이나' **임화영**

임화영(30)은 어릴 적부터 연기에 대한 꿈을 차곡차곡 쌓아온 배우다. 10대 시절 연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국악예고에 진학했고, 서울예대 연극과를 나와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연기력을 갈고 닦아왔다. 광고와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활동해온 임화영은 지난 2일 개봉한 영화 '메이드 인 차이나'(감독 김동후)를 통해 본격적인 스크린 데뷔를 알렸다.

김기덕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은 '메이드 인 차이나'는 중국산 장어를 통해 한국사회의 편견을 꼬집는 영화다. 임화영은 중국에서 밀항해 한국에 넘어온 연변족 처녀 길림성 역을 맡았다. 비중이 큰 역할은 아니었다. 그러나 주인공 중국인 첸(박기웅)과 한국인 여성 미(한채아)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다리가 돼주는 중요한 역할이었다.

주인공 첸-미 의사소통 돕는 연변족 처녀 길림성 역 열연

영화 이어 드라마까지 낙점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가 꿈

"길림성은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타지에 넘어올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잖아요. 모성애적인 부분도 있고요. 물론 시나리오에는 길림성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디션에서는 저 스스로 고민한 길림성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처음 카메라 앞에 서던 날은 엄청나게 떨릴 정도로 긴장됐다. 같이 호흡을 맞춘 박기웅, 한채아의 따뜻한 말 한 마디가 긴장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많지 않은 분량임에도 임화영은 기구한 삶을 버텨낸 길림성의 일상이 스크린을 통해 관객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연기했다.

임화영이 배우를 꿈꾸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서다. EBS에 방영된 연극 무대를 보며 연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무작정 국악예고에 합격한 다음에야 부모님에게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털어놨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딸의 열정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친언니도 큰 힘이 됐다. 그의 친언니는 뮤지컬에 잘 알려진 배우 임강희다. "언니랑 네 살 터울이에요. 투닥거리면서도 친하게 잘 지내는 자매죠. 작품 이야기를 하거나 연기 모니터 해줄 때는 언니가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줘요. 힘들 때는 언니가 맥주도 많이 사줬죠. '걱정하지마, 잘 될 거야'라고 격려해주면서요(웃음)."

모든 배우들이 그렇듯 임화영도 배우로서 힘든 시기가 있었다. 20대 중반부터는 배우로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같은 꿈을 키우던 친구들이 하나 둘 연기를 포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임화영은 연기의 꿈을 단 한 번도 접지 않았다.

기회는 2013년 연극 '광해, 왕이 된 남자'를 통해 찾아왔다. 대형 기획사인 BH엔터테인먼트를 만난 임화영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시작으로 '설행- 눈길을걷다' '퇴마: 무녀굴' '루시드 드림' 등의 영화에 출연하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왔다. 오는 8월에는 주원, 김태희가 주연을 맡은 SBS 새 드라마 '용팔이'(가제)에 출연한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이 환하게 빛날 날만이 기다리고 있다.

"편안하고 매력적인 배우가 되고 싶어요. 어떤 역할이든 잘 녹아들 수 있는 편안함이 있는 배우요. 그리고 메릴 스트립처럼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배우가 되려고 해요. 물론 아직은 연기 내공이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믿고 보는 배우가 될 수 있겠죠? (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패션과 예술, 경계를 허물다

헨릭 빕스코브, 9일부터 대림미술관 전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헨릭 빕스코브(사진)가 한국을 찾았다.

빕스코브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 '헨릭 빕스코브 : 패션과 예술, 경계를 허무는 아티스트' 전시를 연다.

덴마크 출생인 빕스코브는 파리 패션위크에서 매년 컬렉션을 발표하는 유일한 북유럽 패션 디자이너다. 2003년 첫 컬렉션 이래 형식을 파괴하는 충격적인 패션쇼를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패션뿐만 아니라 사진,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순수 예술 영역에서도 꾸준히 활동했다.

또 그는 유럽 일렉트로닉 음악신의 대표 밴드 트렌트모러의 드러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아이슬란드 싱어송라이터 비요크의 오페라 무대와 의상을 직접 디자인하기도 했다.

7일 대림미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빕스코브는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집착하지 않는다. 어떤 작업을 할 때도 미리 공식을 세우지 않는다"며 "잘 모르는 세계에 뛰어드는 것을 즐기며 그 속에서 즉흥적으로 배우고 새롭게 적응해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예술관처럼 대림미술관 전시 역시 파격적이다. 2층에서는 2016년 S/S 콜렉션을 미리 공개하고 여성의 가슴을 모티브로 한 오브제를 선보인다. 3층에서는 죽음을 테마로 한 조형물과 빕스코브가 집착하는 인간의 신체, 옷을 만드는 재료 등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사진, 그래픽 등을 감상할 수 있다. 4층은 민트를 소재로 한 거대 패션쇼 런웨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다. 문의: 02) 720-0667

/김민준기자 mjkim@

아들바보 억척엄마의 자아찾기

라이드
:나에게로의 여행

RIDE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헬렌 헌트

〈더 기버:기억전달자〉 브렌튼 스웨이츠

7월 16일 대개봉!

|감독/주연|헬렌 헌트 |수입/배급| tcast cinecube |15세 이상 관람가|

걸그룹 대전 2막, 소시·걸스데이 등 출격

에이핑크·구하라 솔로 데뷔까지 당당함·편안함·청순함으로 승부

걸스데이

에이핑크

AOA와 씨스타의 대결로 포문을 연 걸그룹 대전이 2차전에 돌입했다. 걸스데이, 소녀시대, 에이핑크가 컴백한 가운데 카라의 구하라가 솔로로 출격해 여름 가요시장을 한층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무기는 바로 '각자만의 매력'이다.

걸스데이는 7일 자정 정규 2집 음반 '러브'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년 만에 4인조 완전체로 모인 걸스데이는 그동안 보여준 당당한 매력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타이틀곡 '링마벨'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벨소리로 표현한 여성의 마음을 담았다. 멤버 혜리는 "그동안의 콘셉트가 소극적인 느낌의 당당함이었다면 이번 '링마벨'은 보다 경쾌하고 밝은 느낌의 당당함을 표현했다"며 신곡의 매력을 소개했다.

소녀시대는 7일 오후 10시 새 싱글 '파티(PARTY)'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2월 발표한 미니 4집 '미스터 미스터(Mr. Mr.)' 이후 1년 6개월 만의 국내 활동이다. 제시카 탈퇴 이후 8인조 체제로 선보이는 첫 활동인 만큼 궁금증도 크다.

신곡 '파티'는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느낌의 곡이다. 그동안 다소 실험적인 노래로 새로운 시도를 했던 소녀시대가 오랜만에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 팬의 기대가 높다. 소녀시대는 '파티'에 이어 '라이온 하트(Lion Heart)'와 '유 씽크(You Think)'를 더블 타이틀로 한 정규 앨범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에이핑크는 오는 16일 정규 2집 '핑크 메모리(PINK MEMORY)'를 발표한다. 앨범 발매에 앞서 스트리트 패션과 화이트 의상을 입은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섹시함과 노출을 주로 내세우는 여름 시장에서 청순함을 내세워 주목된다. 소속사 에이큐브 측은 "에이핑크 본연의 청순한 모습과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다채로운 모습을 모두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카라의 구하라는 오는 14일 솔로로 데뷔해 걸그룹 대전에 동참한다. 첫 번째 미니앨범 '알로하라(ALOHARA)'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소속사 DSP미디어는 "완성도 있는 곡과 퍼포먼스를 위해 고심한 앨범"이라며 "걸그룹 대전에 합류해 구하라만의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아이돌 바라기 총출동

◆ tvN '고교10대천왕' 오후 11시

10대들의 팬덤 문화에 대해 낱낱히 파헤친다. 90년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때 그 시절 팬 활동부터 모두의 입을 쩍 벌어지게 하는 2015 신개념 팬 활동까지 모두 공개된다. 전 재산을 털어 아이돌 상품을 산 여고생 팬부터 아버지 환갑잔치를 빼먹고 스튜디오에 출몰한 팬까지 출연하는 바람에 MC들을 당황케 한다. 그러나 스타의 스케줄을 따라다니면서 기본 월 300만원까지 투자하는 극성 팬이 나타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MBC '밤을 걷는 선비' 오후 10시

인간의 본성을 잃지 않은 뱀파이어 선비 김성열은 절대 악 뱀파이어 귀에게 맞설 비책이 담긴 '정현세자 비망록'을 찾아나서던 중 남장책쾌 조양선과 마주친다.

◆ KBS1 '세상 끝의 집-마음의 언덕' 오후 10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다. 과거 이혼을 한 그녀는 아직도 남편을 잊지 못하며 관계가 회복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 15분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장면을 훔친 '신스틸러' 박효주, 장소연, 하재숙, 이미도가 출연해 그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매력과 입담으로 웃음을 선사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78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20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농촌드라마 오! 할매 (6회)	50 오늘부터 사랑해 (67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18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22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43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38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재)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세상 끝의 집-마음의 언덕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15회)	00 밤을 걷는 선비 (1회)	00 가면 (13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오만과 편견>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50 동행 (재)	10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MBC 뉴스 24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깃발 없는 기수>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비정상회담 (53회) (재)	40 명단공개 (70회) (재)	50 현장토크쇼 TAXI (382회)			◆ 프로야구 (18:30) 롯데 vs LG (SPOTV+) KT vs NC (MBC SPORTS+) KIA vs 넥센 (SKY SPORTS) 두산 vs 한화 (SBS SPORTS) SK vs 삼성 (KBS N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10회) 55 JTBC 뉴스룸	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55회)	00 오늘 뭐 먹지? (77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5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0회)	00 유미의 방 (2회) 30 한식대첩 3 (7회)	00 살인마로 돌변한 동물 (3회)	00 몬스터 대학교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09회)	40 수요미식회 (24회)		00 침묵의 사냥꾼, 아나콘다		
22시				00 항공사고 수사대 : 에어 크래쉬 (6회)	00 무비스토커 (1회)	
23시	00 냉장고를 부탁해 최고의 빅 매치 (2회)	00 고교10대천왕 (11회)	00 2015 테이스티로드	00 <2차 세계 대전:대서양 전투> 막강! U보트	10 무비스토커:금주의 영화	
24시	30 비정상회담 스페셜 (53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0회) (재)	00 유미의 방 (1·2회)	00 서바이벌 알래스카3 (12회)		

US여자오픈 태극낭자들 '집안경쟁'

박인비·최나연·김세영·김효주 등 우승후보 총출동

올시즌 미국 골프계를 점령한 태극낭자들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도 '집안 경쟁'을 예고했다.

10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파70·6460야드)에서는 올해로 70회를 맞는 US여자오픈이 열린다. 미국의 내셔널타이틀 대회지만 한국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1998년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 우승한 이후 최나연(28·SK텔레콤),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 박인비(27·KB금융그룹) 등 모두 6명의 우승자를 배출했다.

특히 박인비는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우승했고 올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박인비는 이번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위민스 PGA챔피언십을 포함해 벌써 3승을 올리며 독주 체제를 갖췄다. 2주 전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했지만 US여자오픈을 앞두고 휴식을 취했다.

2012년 이 대회를 제패한 최나연은 2013년과 2014년 시즌을 우승없이 보냈지만 올 시즌에만 2승을 거두며 슬럼프에서 탈출해 우승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새내기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며 데뷔 해에 2승을 올린 김세영(22·미래에셋)은 앞서 열린 두차례 메이저대회 ANA인스퍼레이션과 위민스 PGA챔피언십에서 뼈아픈 퍼트 실수로 우승을 놓쳐 와신상담하고 있다.

지난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우승을 경험한 김효주(20·롯데)는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KLPGA 투어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전인지(21·하이트진로), 이정민(23·비씨카드)도 출전해 세계 정상의 문을 두드린다.

세계랭킹 2위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도 아직 가져보지 못한 메이저 우승컵에 도전한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박인비

최나연

김세연

구기종목 희비 엇갈렸다

광주U대회

축구 남녀 8강행 활짝
배구 조기 탈락 수모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의 구기종목이 선명한 성적 차이를 보였다.

대표 구기종목이라 할 수 있는 축구는 남녀 모두가 웃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은 전원 대학 선수들로 구성됐지만 조별리그에서 대만과 이탈리아를 연파하며 2승으로 이미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여자 대표팀 역시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마쳐 조 1위로 8강에 올라 8일 프랑스와 4강 진출을 겨룬다. 여자 대표팀에는 지난달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 출전했던 이금민(21·서울시청), 이소담(21·스포츠토토), 김혜영(20·이천대교) 등 세 명의 성인 국가대표도 포함돼 2009년 베오그라드 유니버시아드 이후 6년 만에 금메달 탈환을 노린다.

반면 배구는 남녀가 모두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여자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중국, 칠레, 콜롬비아에 차례로 패해 3전 전패로 9~16위전으로 밀려났다. 2003년 대구 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까지 바라봤던 남자 배구도 대만에 덜미를 잡히면서 A조 4위(2승2패)에 처졌다.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인 미국을 꺾더라도 승점이 8점에 그쳐 9점을 기록 중인 조 2위 아르헨티나를 추월할 수 없게 됐다.

1995년 후쿠오카 대회 이후 20년 만에 다시 유니버시아드 정식 종목이 된 야구는 일본과의 1차전에서 0-8로 완패를 당해 체면을 구겼다.

농구는 남녀의 희비가 엇갈렸다. 남자농구는 6일 열린 중국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76-62로 낙승을 거둔 반면 여자 대표팀은 5일 모잠비크를 꺾고 첫 승을 거뒀으나 6일 캐나다에 무려 52점 차로 대패했다.

/하희철기자

5일 오후 정읍시 상평동 정읍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축구 조별예선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 경기. 한국 대표팀이 1:0으로 승리한 후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리슨 DL 올라 강정호 주전 선발

샌디에이고전 4타수 1안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4번 타자로 나와 끝내기 승리에 보탬이 되는 안타를 터트렸다.

강정호는 7일(한국시간) 열린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4번 타자로 나선 것은 지난달 22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 이후 14일만이다. 시즌 타율은 0.258에서 0.257(202타수 52안타)로 조금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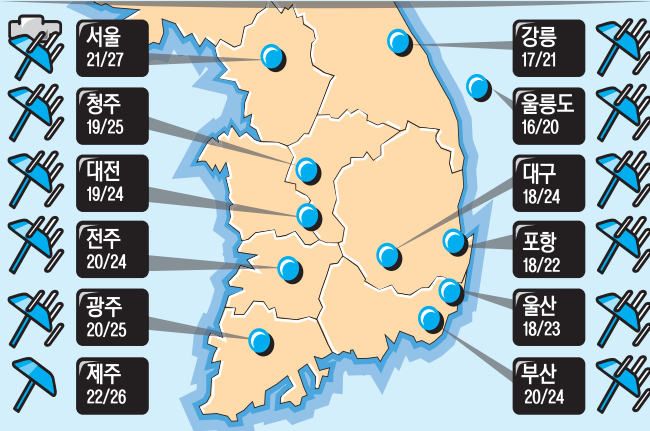
이틀 연속 선발출전한 강정호는 1-1로 맞선 9회말 1사 1루에서 중전 안타를 때려 1사 1, 2루 기회를 만들었다. 피츠버그는 알바레스의 끝내기 안타로 2-1로 승리했다.

한편 전날 도루를 시도하다가 왼손 엄지 인대가 파열된 내야수 조시 해리슨이 부상자 명단(DL)에 올라 강정호는 꾸준히 선발 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MLB닷컴은 "해리슨의 부상으로 강정호가 주전 3루수로 나서고, 우익수 그레고리 폴랑코가 톱타자로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하희철기자

금빛 명중 양궁대표팀 '찰칵' 남자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 남자 컴파운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광주 하계U대회 6일

▲수영= 남자 배영 200m·접영 100m·평영 50m·자유형 1,500m, 여자 자유형 200m·배영 50m 예선(8시30분)
남자 배영 200m·접영 100m·평영 50m, 여자 자유형 200m·배영 50m 준결승(19시)
남자 자유형 100m, 여자 평영 200m·접영 100m 결승(19시·이상 남부대 국제수영장)
▲다이빙= 남자 플랫폼 예선 및 준결승, 여자 3m 스프링보드 결승(12시·남부대 국제수영장)
▲수구= 남자 한국-네덜란드(20시·염주실내수영장)
▲양궁= 리커브 남녀 개인·단체·혼성 결승 및 3~4위전(10시·광주국제양궁장)
▲육상= 남자 창던지기, 포환던지기, 100m, 세단뛰기, 400m, 해머던지기, 높이뛰기, 400m 허들, 10종 경기(9시)
여자 100m, 장대높이뛰기, 원반던지기, 멀리뛰기, 10,000m(9시30분·이상 광주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
▲배드민턴= 남녀 단체전 준결승 및 결승(9시·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야구= 한국-중국(18시·광주 KIA 챔피언스필드)
▲농구= 남자 한국-독일(17시30분·광주대체육관)
▲펜싱= 에페 남자 단체전 예선 및 결승(9시)
플뢰레 여자 단체전 예선 및 결승(11시·이상 김대중컨벤션센터)
▲축구= 여자 준준결승 한국-프랑스(16시30분·호남대축구장)
▲골프= 남녀 개인 및 단체전 1라운드(8시30분·나주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
▲유도= 남녀 단체전(9시·염주빛고을체육관)
▲사격= 남자 스키트·50m소총복사·25m속사권총, 여자 10m공기권총·스키트 본선(8시)
남자 50m소총복사·25m속사권총, 여자 10m공기권총·스키트 결선(11시·이상 나주전남종합사격장)
▲탁구= 남녀복식·혼합복식 예선(10시)
남녀단체전 준준결승(17시30분·이상 장성홍길동체육관)
▲태권도= 남녀 및 혼성 품새 단체전(9시·조선대체육관)
▲테니스= 남녀 단·복식 4회전, 혼합복식 2회전(9시·진월국제코트)
▲배구= 여자 9~16위전 한국-핀란드(18시·호남대체육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3	
9		2			5			7
	7		9	6				
		8		5			9	
					1	3		
	1					8		5
1	3				8		4	
		7	6			9		
2		9					7	

							9	
				5	3			8
3	9	5		8				
		7	5				8	
9	6						2	4
	1				4	6		
				2		7	4	9
6			8	7				
	7							

스도쿠 정답

6	5	1	2	8	7	4	3	9
9	4	2	1	3	5	6	8	7
8	7	3	9	6	4	5	1	2
3	2	8	4	5	6	7	9	1
5	9	6	8	7	1	3	2	4
7	1	4	3	2	9	8	6	5
1	3	5	7	9	8	2	4	6
4	8	7	6	1	2	9	5	3
2	6	9	5	4	3	1	7	8

1	8	2	4	6	7	3	9	5
7	4	6	9	5	3	2	1	8
3	9	5	1	8	2	4	6	7
4	2	7	5	3	6	9	8	1
9	6	3	7	1	8	5	2	4
5	1	8	2	9	4	6	7	3
8	3	1	6	2	5	7	4	9
6	5	4	8	7	9	1	3	2
2	7	9	3	4	1	8	5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CEO Kim Seung Yeon's Apology for Violating Special Economic Law

김승연 회장 특경법 어긴 폭발사과

Kim Seung Yeon(P), the CEO and Chairman of Hanwha Group apologized not long ago regarding the Hanwha Chemical explosion.

His actions were out from the point of the law. Special Economic Crime's additional punishment is the reason.

Kim was sentenced to 3 years in prison, 5 years of probation, 5 million dollars fine and 300 hours of community services.

The law states that anyone who was sentenced guilty of embezzling over 500 thousand dollars, even after his probation period, he is claimed guilty for another 2 years and therefore cannot be employed in enterprises related to the person's crime.

최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의 폭발사고와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표자 자격으로 나서서 사과를 했다.

김 회장의 이런 활동은 사실상 법의 취지를 벗어난 행위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이 법상의 배임죄로 2014년 2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3년 6개월이 남았다.

특경법에 의해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간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PAGOD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해외파견 기회, 붙잡아도 될까요
5~7년간 일본·동남아쪽 무난할 듯

참사랑 남자 67년 8월 31일 19시경

Q 안녕하세요. 메트로 신문이 오랜만에 전철역 앞에 다시 나타나서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사주 속으로'를 보고 신청합니다. 저는 1967년생으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슬하에 아이가 둘 있습니다. 회사가 해외에 지사를 차리는데 제가 지사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그냥 국내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듯도 합니다만 이번기회에 외국바람을 쐴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만 잘못 하다가 일을 그르치면 국내에 있는 것만 못 할 것 같아 망설여 집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 직장생활은 현실이며 생존의 도구인 만큼 매우 중요한 데 일단은 직장에서 꾸준히 일을 해야 미래가 보장이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 운이 따라야 하는데 세상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 운이 없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방법을 동원해도 실패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술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고 하여 '비 오는 날씨가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우산을 준비하거나 밖에 나갈 일을 잠시 보류하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의 길흉에 따라 어느 시기에 일을 시작하고 언제 뒤로 물러서야 할지를 알고 행한다면 실패를 줄일 것 입니다. 사주에서 세운이란 1년마다 오는 운이고 대운은 10년마다 오는 것인데 특히 대운이 충 되거나 안 좋을 때는 복지부동 하고 있어야 하며 투자나 이동은 금물이고 그 기간은 수양기도를 하듯이 몸 조신을 하면서 자격증 획득이나 실력 양성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는 잠시 외국에 나가 있으면 발전과 함께 별다른 사고나 고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귀하는 현재 계미(癸未) 대운에 생일간(生日干)과 충극(충돌)을 하고 있지만 5~7년간은 무난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가면 신상에 더욱 이롭습니다. 해외생활을 하면서 주의할 점은 생일지(生日支)에 도화(桃花)를 놓아 멋과 풍류를 즐길 알지만 주색풍파에 쉽게 빠질 수 있으며 식상(食傷: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부족하여 추진력이 약하니 무슨 일이든 용두사미가 되어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성과면 에서 실속 없는 결과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명심 하세요. 지면상 더 듣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 테니 다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8일 (음 5월 23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길함과 흉함이 교차하는 하루입니다. **60년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2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습니다. **84년생** 힘들게 이룬 일일수록 가치 있고 빛나는 법입니다.

49년생 후배들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세요. **61년생** 목표를 향해 매진하세요. **73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85년생**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50년생 아랫사람들을 잘 챙기세요. **62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74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이다. **86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51년생 여행은 친구들과 함께 떠나세요. **63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에게 연락이옵니다. **87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세요.

52년생 서쪽방향은 길하지 못합니다. **64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세요. **76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88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53년생 의기소침 하지 마세요. **65년생** 작은 것으 로 큰 것을 이룰 것입니다. **77년생**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89년생** 달빛이 하늘에 훤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훤합니다.

54년생 멸시하는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66년생** 당신의 소질을 보여주세요. **78년생** 모든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볼 때입니다. **90년생** 숨겨 놓은 기술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55년생 손실만 있고 이득은 없습니다. **67년생** 사람들과 다투면 좋지 않습니다. **79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세요. **90년생** 천 번이 든 만 번이든 참으세요.

56년생 모든 일에 꾀가 많으니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68년생**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게 되니 마음이 아픕니다. **80년생**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92년생** 사치를 삼가하세요.

57년생 너무 거만하지 마세요. **69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81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93년생** 고집을 피우지마세요.

58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70년생** 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82년생** 정신을 맑게하세요. **94년생**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59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71년생**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83년생** 대비하는 것이 길합니다. **95년생**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한국광고주협회의 이상한 '언론사냥'

최치선의 세상만사

전경련 예하 단체인 한국광고주협회(회장 이정치)는 최근 보도자료와 기관지 반론보도닷컴을 통해 메트로를 사이비언론으로 지목했다.

이는 광고주협회가 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광고주협회가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사결과 가장 심한 사이비행위 매체는 33%응답을 받은 본지(메트로신문)가 차지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 유사언론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 둘째, 100개 응답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본지를 지목한 33%응답(33개사)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이다.

본지 취재 결과 한국리서치는 응답자 그리고 질문 등이 너무 일방적으로 구성돼 편파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 보기를 주지 않았고 랜덤으로 100개사를 뽑아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사항목과 사이비·유사언론행위라는 단어는 광고주협회가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500대기업 중 247개 기업에 무작위로 보낸 항목도 광고주협회의 주관적인 견해이고 응답자들 역시 기업의 홍보담당자들로 구성됐다. 이 같은 이유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다.

결국 이번 조사는 광고주협회가 반론보도닷컴을 앞세워 언론사냥에 나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반론보도닷컴의 회사소개를 보면 '반론보도닷컴은 우리 경제 및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보기사, 왜곡·과장 보도를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또한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수주하고자 하는 사이비·유사언론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건전한 언론환경 및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반론보도닷컴은 태생부터 203개 회원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고주협회의 온라인 기관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안테나는 회원사에 불리한 기사를 색출하는데 맞춰져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쳐 놓은 그물에 걸리는 순간 사이비나 유사언론이란 무기를 무차별 난사해서 제거해 버리는 작업을 한다.

일제식민치하에서황국신민화정책에 반대하는 신문을 길들이기 위해 사용된 '사이비'라는 단어가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 광고주협회에 의해서 부활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광고라는 무기를 앞세워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제거하거나 길들이겠다는 대단한 사명 때문이다.

현재 광고주협회의 기관지인 반론보도닷컴이 정해놓은 기준(회사소개)에서 보면 회원사들을 비판하는 선을 조금만 넘으면 그 매체는 사이비 언론이 되는 프레임이다.

이런 구조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본지를 사이비·유사언론행위로 지목한 33%응답에 대한 부분이다. 응답사들이 메트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전혀 언급이 없고 어떤 항목에서 지적이 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적어도 광고주협회가 메트로를 제거할 목적으로 이 조사를실시하지 않았다면 보도자료에 결과만 적을게 아니라 내용과 전체적인 조사 과정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그래야 본지를 비롯해 보도자료를 받은 수많은 매체와 독자들도 이해를 할 것이 아닌가?

만약 투명하게 조사과정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번 조사는 한국광고주협회가 특정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악의적인 조사로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사회부장

社說

문형표 장관의 마지막 도리

한 달 넘게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창궐사태가 점차 잦아드는 듯하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7일발표에 따르면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이틀 연속 나오지 않았다. 사망자 역시 1주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나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사실 이 나라를 뒤덮었던 메르스 사태는 정부당국이 초기에 정확하고 주의깊게 대처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혼란이요 공포였다. 실제로 메르스 창궐 이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잃었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달 전국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4월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이유와 그 파장에 대해서 새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메르스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필요한 방역조치도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 이름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은 우왕좌왕했다. 정부가 삼성병원을 싸고 돈다는 의혹도 나돌았다. 그야말로 '무능'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의 무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누를 끼쳤다. 몇 달 전부터 예정돼 있던 대통령의 미국방문이라는 중대한 외교일정마저 그르치게 한 것이다. 이렇듯 위로는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아래로는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으니 그 책임의 무거움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그러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과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고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누가 문책하기 이전에 스스로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장관된 사람의 마지막 도리 아닐까.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기이한 관계

기자 수첩
복 현 명
<사회부 기자>

"교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폭언과 함께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해 교수님한테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대학원생이 직접 겪었던 증언이다.

이 대학원생은 "모든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는 왕으로 군림한다"고 기자에게 귀띔했다.

이러한 상황이 한 대학의 대학원생에게만 국한된 이야기 일까?

지난 2014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발간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를 보면 전국 대학원생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조사대상인 전국 13개 대학교의 대학원생 2354명 중 45.5%(1071명)가 지도교수에게 언어·신체·성적 폭력이나 차별, 사적노동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남성(41%)보다는 여성(52%)이, 석사과정생(41%)보다는 박사과정생(52%)이 부당한 처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모 대학의 대학원생 A씨는 "지도교수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서 대학원생은 실질적 약자로 존재한다. 전부 그러한 대우를 받는건 아니지만 대학원생들끼리 다 알고 있다"며 "설거지와 쇼핑은 물론 교수님 자녀의 과외를 하라고 강요받은 대학원생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의 대학원생 B씨는 "연구실에서 연구조교를 했는데 지도교수가 주말에도 연구실에 출근해서 내 일을 도와야 한다고 말을 해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연구실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며 "졸업 여부가 지도교수에게 달려있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C씨는 "공동연구로 시작한 논문을 제가 거의 작성했는데 지도교수가 연구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를 저자에서 배제시켰다. 따져 묻고 싶었으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그냥 참았다"고 전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2조(기본원칙)는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기재됐다.

이어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는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주요 대학들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 총학생회장 출신의 한 대학원생은 "대학원생 권리장전까지 마련해 대학원생들의 인권을 외치고 있지만 교수님들의 인식 변화가 먼저 일어나지 않는 한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현재 국내 일반대학원 재학생은 33만명으로 한 학기 등록금 평균은 418만원이다.

전국 4년제 일반 대학(학부)의 평균 등록금(334만원)보다 약 100만원 높다.

대학원생은 봉이 아니다. 지도교수의 전용인력이 아니라 교수와 함께 학문을 탐구하는 연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진정으로 대학원생을 제자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그런 교수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국제계약협상은 탐색전이다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는 내가 계약협상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 국제계약협상을 해 보면 협상 상대방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내가 역량이 없다고 상대방이 평가하고 있다면 나를 속이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될 지도 모른다.

한국의 B사는 미국회사인 A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가 제시한 계약조건을 다 받아 주었다. A사가 발주한 제품을 생산해 주고 약정한 물품대금을 받는 것이 핵심이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다 양보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생각했다.

거래를 진행하는 중에 B사는 A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고, A사 또한 B사의 업무방식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다. A사가 볼 때 B사는 법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확실해 보였다. 세월이 흐르고 A사는 경영실적 악화로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이 절실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A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결정하고 B사에 대해서는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 B사로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영국의 C사는 한국회사인 D사와 기본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었다. C는 '전세계적으로 수 십 건의 계약을 동일하게 체결하고 있으니 서명을 해서 보내주면 된다'고 말하며 D사를 안심시켰다.

D사로서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협상에 나섰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D사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 C사는 대부분 수용하였다. C사는 D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였다.

국제거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분쟁이 생길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역량은 상대방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이 역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협상은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다.